

제 7장 임진왜란과 고성

제 1절 임진왜란 개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 1년여의 전쟁준비 끝에 1592년 4월, 조선을 침략하였다. 일본군의 편성은 철저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른 것으로 수시로 명령서를 내려 지시하였다. 각 부대의 주장은 일본 전국시대의 다이묘[大名]로서 각자가 자신의 영지를 소유한 영주, 즉 센코쿠다이묘[戰國大名]라고 불렀는데 그 성장배경과 전국통일을 달성한 풍신정권(豊臣政權)하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15~16세기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 이후 지내(畿内)지대를 제외하고는 장원제의 지배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으로 일컬어지는 무질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내부로부터 재지영주층들이 각축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갔으며 점차 하나의 지방권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동란 속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복속되어 조선침략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센코쿠다이묘는 기내지역의 무역을 통한 선진 경제체제와는 달리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재지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토지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배질서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검지(檢地)와 석고제(石高制)를 실시하여 다이묘들의 토지와와의 관계를 강제로 끊었다.¹⁾ 즉, 검지(토지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경작지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종의 녹봉을 정하여 지급하는 석고제를 실시하여 영주권과 토지가 분리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다이묘들로 하여금 영지를 옮겨가도록 할 수 있었으니 토착세력이었던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를 떠나 다른 영지로 옮겨간다는 것은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재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체제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대를 결집하여 조선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는 직접 조선으로 오지 않았으나 명령서를 보내 지시하였으며, 오타니 요시즈쿠[大谷吉繼]·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마시다 나가모리[增田長盛] 등 그의 봉행(奉行)을 파견하여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 장수들을 감시·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이묘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장인 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가 평양성에 주둔한 고니시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황해도 봉산에서 달아났는데 이

1) 速水融(조성원, 정안기 옮김),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해안, 2006) 99~100쪽.

를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겁하다고 책망하면서 오토모의 영지를 몰수하였다. 또 히젠[肥前] 나고야(名護屋)의 하타 노부토키[波多信時], 사츠마[薩摩] 데미즈[出水]의 시마즈 타다타쓰[島津忠辰]는 군사행동에 태만했다고 하여 영지를 몰수하였다.²⁾ 이와 같은 처사는 조선에서 군사행동에 열심이지 않으면 영지가 몰수되고 가문이 절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여러 다이묘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에 있는 장수(다이묘)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 가운데 각 장수들은 본국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유지하기 위해 뚜렷한 전공을 세워야 했으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가운데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오랜 갈등과 경쟁으로 점철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임진년 조선침략을 위해 편성된 군대에서 제1대 주장에 고니시를, 제2대 주장에 가토를 선정하였는데, 도요토미는 이들이 하루씩 번갈아 선봉에 서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외교능력이 탁월하여 발탁되었던 고니시는 사카이[堺]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도요토미 정권의 재정을 맡아 총애를 얻었으나 무사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토에게 멸시를 받았다. 반면, 전형적인 무장이었던 가토는 도요토미와 같은 나고야(名古屋)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도요토미를 보필하면서 명성을 쌓아왔다.³⁾ 이러한 연유로 두 사람은 도요토미의 총애를 얻었지만 그 성향이 너무 달라 서로간의 갈등은 조선에서도 전공을 다투는 관계로 이어졌다.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는 조선과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야욕을 마침내 실행하기에 이른다. 1~9번대까지 9개 부대로 편성된 약 15만 8천여의 대군으로 조선침략을 감행하여 1592년 4월 14일 고니시 유키나가를 주장으로 한 1번대가 1만 8천여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포에 상륙, 부산진·동래성을 공격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2·3번대가 연양·김해성 등을 함락시킨뒤 크게 4로를 따라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중로(中路)로는 양산·밀양·청도·대구·상주를 거쳐 조령을 향해 북상하였으며 동로(東路)로는 장기·울산·경주·군위·용궁을 거쳐 조령을 향해 갔고, 서로(西路)로는 김해·성주·무계·지례·김산을 거쳐 추풍령을 향해 진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로(路)는 경상도 남해안을 따라 전라도를 향해 진격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침략에 조정에서는 신립을 도순변사로, 김여물을 그의 종사관으로 삼았으며 이일을 순변사로 삼았다. 또한 한성을 방어하기 위해 우의정 이양원을 한성도검찰사로, 이진·변연수·신각을 각각 좌·중·우위대장으로 삼았으며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

2) 北島万次, 「제1차 진주전투의 경위와 제2차 진주전투의 요인」(『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2010).

3)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학고재, 2012) 58-60쪽.

사, 김득을 경상좌도 안집사로 삼아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급히 대책을 마련하였다⁴⁾. 먼저 한성에서 출발한 이일은 상주에 도착하여 미처 군사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 대패하여 부장들은 전사하고 홀로 충주로 달아났으며 신립의 군사 또한 조령에 도착했다가 충주 탄금대로 물러나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전멸하고 말았다⁵⁾. 특히 신립의 패배는 조정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죽지세로 한성을 향해 밀려드는 일본군에 한강 방어를 맡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개성방면으로 퇴각하고 수성대장이양원과 부원수 신각이 양주로 퇴각함으로써 5월 3일 마침내 한성이 점령되고 말았다.

4월 14일 부산진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발발 20일 만에 도성이 함락되는 위기에 처했다. 4로(路)로 진격한 일본군은 동·중·서로의 3로를 통해 경상도·충청도의 요지를 거쳐 한성까지 함락시켰다. 고니시군은 계속 북상하여 평양성을 점령하고가도 기요마사[加藤清正]군은 함경도 방면으로 진격하여 각 지역을 함락시켰다. 나머지 남해안을 따라 전라도로 진격한 일본군은 경상우도의병과 전라도 수군의 활약으로 그 진로가 차단되었다. 한성에서 평양으로 피란했던 선조는 북상하는 고니시군에 의해 또다시 의주로 피란함으로써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이 일본군에 점령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선이 일본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만큼 국방상태가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초기에 확립된 군사제도가 점차 그 폐단을 드러내면서 군사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군역의 포납화(布納化)가 실시되면서 일정한 값을 치르고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放軍收布)가 확대되어갔고 그 값도 높아져 민폐가 심해졌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1541년 포납액을 공정화(公定化)하여 군적수포제를 실시하는 등 군사제도가 심하게 변질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던 당시 한성에서조차 3일이 지나도록 훈련된 군사 3백 명을 모으지 못했던 상황⁶⁾은 고질적인 군사제도의 폐단으로 인하여 조선의 국방상태가 얼마나 부실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이 장차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는 이미 전쟁발발 1년 전, 통신사로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김성일 등에 의하여 조정에 보고되었다⁷⁾. 그리하여 조정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호남과 영남지역의 여러 읍성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하였으나 이미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더욱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⁸⁾. 비록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방비를 했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군사체제의 폐단을 만회하지

4)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임진 4월

5) 『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4-26일

6) 『장비록』 권1

7) 『선조실록』 24년 3월 1일

8) 『선조실록』 24년 7월 1일

못하였다. 따라서 극히 부실한 군사로서는 100여 년 간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거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을 상대하기란 애초에 그 전력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군이 평양성까지 점령하자 명나라는 조선으로 출병하였다. 당시 명의 조선 출병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자국방위를 위한 것이었다. 그 전략의 첫째는 명의 영토 내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조선에서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일본군이 만주 지역으로 침입할 경우 넓은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 조선반도는 산세가 험하고 하천이 많아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는 조선을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과의 사대관계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종전 후에도 조선에서는 명에 대하여 ‘재조지은(再造之恩)’의 관념이 팽배해졌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승리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어갔다. 기세등등한 명군은 일본군을 추격하다 벽제관에서 일본군에 패함으로써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명군의 입장에서는 군이 손해를 보가며 싸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본군의 입장에서조차 혹한(酷寒)·병량부족과 해주산성에서의 패배 등으로 피폐해진 군사로는 명나라 정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에 주둔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강화를 논의하게 되었다.

강화교섭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조건들은 명의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처로 삼는 다거나 조선의 4도를 할양할 것 등 처음부터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이었는데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정유재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은 7월,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을 격파하고 8월 중순에 남원성을 함락시킨 이후 점차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경상도에서는 울산으로부터 사천 지역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포진해 있었다. 12월, 약 5만여 명의 조명연합군이 울산의 도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양 측의 많은 희생자만 냈을 뿐,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1598년 명측에서는 더욱 군사를 증강하여 종전기에는 9만여 병력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총독군문 형개(邢玠) 휘하의 명군은 경상도 울산으로부터 전라도 순천까지의 해안선에 포진한 일본군을 일시에 섬멸하기 위한 사로병진작전(四路竝進作戰)을 구사하였다. 이는 일본군이 주둔한 여러 성을 일시에 공격함으로써 서로 응원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로東路 (울산 가토 기요마사군 공격)	제독 마귀麻貴 등 약 2만4천
중로中路 (사천 시마즈 요시히로군 공격)	제독 동일원董一元 등 약 1만3천5백
서로西路 (순천 고니시 유키나가군 공격)	제독 유정劉縱 등 약 1만3천
수로水路 (해로를 통한 순천왜교성 공격)	제독 진린陳璘 등 약 8천

사로병진작전四路竝進作戰 상황도



명나라 제독 유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을 출발하여 9월 18일 순천관내에 진입하였다. 도원수 권율과 전라병사 이광악 등의 조선군도 함께 하였다. 궁지에 몰린 고니시 유키나가는 유정에게 강화를 청하였는데, 이때 유정은 강화를 수용하고 고니시를 생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즉, 기괘관 왕문헌을 제독이라 속이고 우후 백한남을 도원수로 속여서 서로 만나려고 하였으나 광양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명나라 군사가 앞질러 포를 쏘는 바람에 고니시는 크게 놀라 달아나버렸다. 추격 과정에서 적군의 수급 90여 급을 획득하였고 즉시 왜교성을 공략하였으나 일본군은 포문으로 대포만 쏠 뿐, 큰 공방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9월 20일에 있었던 서전은 유정의 작전 실패로 공성전으로 이어졌으며 10월 7일 퇴각하고 말았다.

한편, 수로를 통해 진격한 명나라 제독 진린과 조선수군통제사 이순신 등은 왜교성 앞바다의 장도(獐島)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군의 유일한 해상진출로이자 남해도로 통하는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였다. 수군은 독자적으로 해상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육로군이 철수해 버린 것을 확인하자 일단 나로도도 물러났다. 동시에 전투를 치른 울산성과 사천성도 모두 패하여 4로병진작전은 실패하였다.

이후 유정이 퇴군한 것에 대해 질책이 떨어지자 순천에 재진군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10월 말~11월 초까지 멀찌감치 떨어져 진을 치고 공격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니시 측과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일본군의 철병시기를 논의할 뿐이었다. 나라도에 있던 연합수군은 진군하여 11월 11일 광양만의 묘도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왜교성 탈출을 기도하던 일본군의 선박 10여 척이 묘도 앞에 이르자 이를 격파하였다. 13일, 장도 앞에 10여 척의 선박이 다시 나타나자 성 밑까지 추격하여 장도에 진을 쳤다. 그러나 고니시의 뇌물을 받은 진린은 적군의 퇴로를 열어주고 말았다. 고니시는 사천성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한 시마즈군이 사천성에서 노량해협(관음포)을 통해 오자 이에 맞서 연합수군이 전투를 치른 이른 바 ‘노량해전’이 있었다. 여기에서 이순신 등이 전사하였으며 이 해전을 틈타 순천 왜교성에 주둔한 일본군은 탈출하였다.

이 당시 사천성의 시마즈군은 이미 명군을 물리친 후였다. 일본군의 계략에 넘어간 동일원 등의 명군은 남강을 건너 사천성에 밀어닥쳤다. 10월 1일, 대수문(大手門)을 쳐부수고 담장을 넘으려 할 때, 일본군은 첩포를 일제히 발사하였으며 우연히 화약상자로 불이 붙어 차례로 폭발하자 이에 명군은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퇴각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추격하였고 명군은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성주로 향하여 퇴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울산성에서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공방전이 일어났다. 울산왜성(蔚山倭城)은 도산성(島山城)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1597년 가토 기요마사가 10월부터 1만 6천명을 동원하여 40여 일만에 울산읍성과 병영성의 돌을 헐어다가 쌓은 성이다. 울산시 중구 학성동 학성산에 축성한 것이고 독립구릉으로 형성된 야산으로 해발 50m정도이다.

울산왜성에서의 전투는 1597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4일 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제1차 전투였다. 1597년 12월 23일부터 있었던 울산왜성의 전투는 명나라 양호(楊鎬)와 마귀(麻貴)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성을 공격, 마침 축성중이라 성밖에 야영하던 적을 섬멸하고 반구정의 적진과 태화강의 적 보루를 치니 이때 일대 결전이 벌어져 패한 적은 성안으로 달아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조·명연합군은 이듬해 1월 3일까지 매일같이 치열한 화공을 퍼붓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서생포왜성(西生浦倭城)에서 오는 적의 응원선단을 막으며 쳐서 성채의 접근을 막고 별장 김응서(金應瑞)군은 성 밖에서 적의 식수원을 차단하여 적을 굶주리게

하였다. 이러한 공성에도 적은 비 오듯 총포를 쏘아 방어하니 조명군의 공격은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제2차 전투는 마귀와 오유충(吳惟忠) 24,000여 병력, 조선군 별장 김응서 5,500여 함께 30,000명의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의 1만과 서생포왜성 수장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5,000명 도합 15,000명으로 울산성에서의 공방전이 치열하였다. 경주에 집결하고 있던 명군은 부총병 해생(解生)을 선봉장으로 하여 9월 21일 울산을 향하였고, 좌수영에 있던 별장 김응서는 동래온정(東萊溫井)의 적을 격파하여 적의 부산, 울산간의 연락로를 차단하였고 이날 해생(解生)은 직접 울산왜성의 적과 싸움을 걸어 성책 밖에 있던 천여의 적을 격파하였다. 마귀는 22일 2만으로 성을 공격하자 가토군이 성밖으로 나와 접전하여 이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 성의 외책을 탈취하는 한편 방옥(房屋)·군량·마랑을 다 불태우고 아성(牙城)에 접근하였으나 성내로 물러난 적이 조총을 퍼부어 더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체독 마귀는 군사를 거두어 경주군 모화(毛火)로 물러났다가 10월 6일 영천성(永川城)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내린 철수령에 따라 가토군은 11월 18일 울산왜성 성채를 불태우고 퇴각하였다. 성을 시루를 엮은 것 같다하여 “시루성”이라고도 한다. 이 성은 왜성이지만 전후에는 서생포왜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군이 한동안 쓰고 있었다.

제 2절 임란초 고성지역의 전황

1) 고성지역의 전투 개요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1번대~9번대까지 15만여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였다. 부산진에 이어 동래부까지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곧바로 북상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였다. 조선은 대규모 적침에 놀라 지방수령들이 앞다투어 달아났고 임금까지 피난을 떠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한편, 부산으로부터 남해안을 통해 진격해온 일본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 도도 타카도라[藤堂高虎]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단이였다. 이들은 일본군이 나고야성에서 부산으로 침략하는 배의 수송이 원활하도록 對馬島, 壹岐島 등에 배치되었고,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격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성지역에 일본군이 처음 침략해온 시기는 4월 말 경이었는데, 원군의 경상우수군을 격파하고 진해·고성 연안으로 출몰하던 일본 수군으로 추측된다. 이후 원군은 원군을 요청하여 이순신·이억기의 전라도 수군과 연합하여 5월 8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합포·적진포·사천·당포·당항포 등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황급히 상륙

하여 도주하였는데 함선이 격파되어 사천·고성·진해 등 육로로 횡행하며 분탕질을 하였다. 5월 말경 일본군이 고성을 점령한 후 서진(西進)하여 사천성까지 점령하였다.

사천성을 점령한 일본 장수는 가메이 코레노리[龜井茲矩(眞矩)]로서 사천 부근에 배를 정박하고 상륙하여 사천성 뿐 아니라 곤양·하동까지 진출하였다.⁹⁾ 한편, 고성성을 점령한 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堀内氏善]라는 수군 장수였다. 일본선단을 이끌던 그가 상륙하여 고성을 침략한 과정을 살펴보면, 4월 일본수군이 경상우수군을 와해시킨 후 도도 타카도라 등과 함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었다.¹⁰⁾ 이때 조선의 삼도수군이 연합·정비한 후 진격하여 5월 8-9일, 옥포·합포·적진포 등에서 승전한 후 전라도 해역으로 잠시 물러나 있었다. 이 해전에서 파선된 일본수군은 진해·고성 등지에 상륙하여 분탕질을 하였다. 진해현감은 도주하고 고성현령 김현은 형벌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자로서 백성들의 이반현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도주하였다.¹¹⁾ 그 외의 일본선단은 다시 여러 부대로 나누어 사천·곤양, 고성·진해 등지로 진출하여 상륙한 후 각지를 침략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미 일부 일본군이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가세하여 고성성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며, 가메이 코레노리 역시 사천·곤양 지역으로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전라좌수영에서 출발한 이순신은 노량해역에서 원군과 합세하여 사천 선창 앞 바다에 이르자, 선창에 일본군 4백여 명이 진을 치고 일본군선 12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북선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고 적선을 불태우자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주하였다. 이어 조선수군은 당포에 있는 적을 발견하였는데, 당포 선창에 배를 대고 성 안팎으로 진을 친 일본군을 다시 공격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웠다. 이때 우후 이몽구가 왜선을 수색하여 가메이 코레노리의 금부채를 발견하였다.¹²⁾ 즉, 가메이의 군대가 사천을 비롯하여 당포부근까지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조선수군에 의해 해상로가 봉쇄되자 점령한 읍성을 중심으로 수성전에 들어갔으며 사천·고성·진해 등에 주둔한 일본군은 서로 군사 백여 명이 왕래하며 연락선을 형성하고 육로를 통한 진격을 꾀하였다.¹³⁾ 5월 말경, 초유사 김성일은 김대명·한계·정승훈에 군사 6백여 명을 모집하여 고성의 최강·이달 부대와 합세하여 사천·고성의 적을 공격하자 적은 웅천·김해 등지로 달아났다. 이에 창원 마산포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

9)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쪽.

10)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5·214쪽.

11)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12)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唐浦破倭兵狀』.

13) 『征蠻錄』 坤, 承政院 開壻(7월 15일).

다.¹⁴⁾ 이후 다시 적군이 고성·사천 등지로 침입하였고, 고성의 일본군이 진주로 침범할 기세를 보이며 남강 이남지역까지 박두하자, 진주판관 김시민·사천현감 정득열·곤양군수 이광악 등이 군사를 정비하여 사천·고성·진해 등지의 적군을 공격하였다. 고성은 일본군과 이에 부역한 조선인들이 고성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 탈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¹⁵⁾

진주로 회군했을 때, 흩어졌던 사졸들이 모여 군세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사천의 적군이 진주를 범하려 한다는 소식에 김시민은 우병사 조대곤과 함께 사천성으로 진격하였다. 십수교(十水橋)에서 싸워 깨뜨리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사천성 아래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얼마 후 사천성을 지키던 가메이 코레노리는 밤을 틈타 고성성으로 도주하였는데, 고성성을 수비하던 호리노우찌 우지요시는 이미 웅천으로 퇴각하였기 때문에 가메이 코레노리의 군대가 고성성을 수비하게 되었다. 김시민이 이끄는 군사가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기 위해 영선현(永善縣)에 진을 쳤다가 밤중에 대둔령(大屯嶺)을 넘어 새벽에 고성성 아래에 당도하여 군세를 과시하였다. 이에 적군은 며칠 후 밤에 달아나 8월 말, 진해의 일본군과 합세하여 창원으로 퇴각하였다.¹⁶⁾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으니 이 공로로 김시민은 진주목사로 승진하였다.

고성지역은 임란 초부터 조선군과 일본군의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부산·김해·창원 등지에 주둔한 적군의 침략에 시달렸으며, 거제도·가덕도 등에 주둔한 일본수군의 분탕질이 끊이지 않는 등 수륙 양면으로 적군의 출몰이 잦아 혼란의 중심에 놓인 곳이었다. 적군의 예봉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던 만큼 향토수호를 위한 의병활동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2) 고성 연해지역의 해전

(1) 초기 해전의 승첩과 적진포

일본군이 부산지역으로 침략하자 경상좌수군은 대항하지 못하고 박홍이 도주하면서 무너

14)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5월 20일(閔老峯所撰中興誌).

15)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16) 『난중잡록』 1, 임진년 8월 4일·9일; 『고대일록』 권1, 임진년 秋9월 1일(丁巳);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205쪽;

특히 『일본전사-조선역-』의 관련 서술내용에 의하면 가메이 코레노리가 고성에서 창원을 거쳐 부산으로 철병한 이유가 하시바 히데카즈[羽柴秀勝]의 철군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김시민軍의 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참고자료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조선 측이 사천성을 공격하자 고성성으로 도주하였고,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자 창원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에 비춰봤을 때 비록 가메이군이 고성성에서 철군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전세가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지고 말았다. 원군이 이끄는 경상우수군은 적에 대항해 출격하여 적선 10여 척을 불사르기도 하였으나 패퇴하여 전함 4척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원군은 이순신에게 구원요청을 하였고 이순신은 출정준비를 하는 한편, 조정에 전황을 보고하고 4월 26일 출정명령을 받았다. 전라우수군이 도착하지 않았으나 지체할 수 없어 5월 4일 먼저 출동하였다.

<전라좌수군 지휘부>

지휘관	전라좌수사 이순신	좌부장	낙안군수 신호
중위장	방담첨사 이순신	중부장	광양현감 어영담
유군장	발포가장 나대용	우부장	보성군수 김득광
후부장	녹도만호 정운	좌척후장	여도권관 김인영
우척후장	사도첨사 김완	진부장	홍양현감 배홍립
참퇴장	군관 배응록	돌격장	군관 이연량
유진장	우후 이몽구	한후장	군관 최대성

<경상우수군 지휘부>

지휘관	경상우수사 원균		
	남해현령 기효근		소비포권관 이영남
	미조항첨사 김승룡		영등포만호 우치적
	평산포권관 김축		지세포만호 한백록
	사랑만호 이여염		옥포만호 이운룡

이 때 남해상으로 침략한 일본군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구키 요시타카[九鬼嘉明]·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의 이끌고 온 군사들이었다.

한산도 해역에서 경상우수군과 합류하여 5월 7일, 옥포에 정박해 있던 왜선 26척을 격파하고 영등포에 결진하였는데, 적선을 발견했다는 척후장의 보고를 받고 출동하여 합포 앞 바다에서 적선 5척을 분멸하였다. 창원 염포 앞바다에 진을 치고 다음날인 5월 8일, 진해 고리량(古里梁)에 적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장 출발하여 저도(猪島)를 지나 고성 적진포(赤珍浦)에 이르렀다. 그 포구에는 대형·중형선 13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적군은 포구 부근에서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하고 있었는데 조선수군을 보자 산으로 달아났다. 이에 대형선 9척과 중형선 2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군사를 수습하고 9일에 본영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출정에서는 모두 42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여기서 적진포는 그 위치비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까지 7지점을 당시의 적진포 지역으로 비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① 積德 -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② 당항포 -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 ③ 春元浦 -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④ 적포만 -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 ⑤ 당동만 -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구당마을
- ⑥ 당동만 -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상원·하원
- ⑦ 당동만 -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최근 학술연구¹⁷⁾에 의하면 ⑦에 해당하는 화당리로 비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적진포(赤珍浦)는 적진포(積珍浦)와 동일한 곳으로서 고려시대에는 적전포(赤田浦)라고 하였다. 즉, ‘赤(적)’ 과 ‘積(적)’ 은 동음이의어로서 같은 음을 가진 글자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적진향(積珍鄉)’ 이 고성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철성지』와 『고성지』에는 적진향이 지금의 남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남호남 근해형편도」에는 남촌진 앞바다에 ‘적진포용수백척기동풍(積珍浦容數百隻忌東風)’ 라고 표기하여 남촌진에 적진포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촌진지도(南村鎭地圖)(1872년 지방도)에는 여러 선박이 정박해 있는 포구의 모습과 민가들이 묘사되어 있어 적진포해전 당시 일본군이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하였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2) 당포·당항포 해전

5월 29일 2차 출정하였다. 전라좌수영에서 출발한 이순신은 노량해역에서 원균과 합세하여 사천 선창 앞바다에 이르자, 선창에 일본군 4백여 명이 진을 치고 일본군선 12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북선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고 적선을 불태우자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주하였다. 6월 1일 모자랑포(毛自郎浦)에서 고성 사랑도로 옮겨 적정을 살폈다. 2일, 당포 선창에 적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장 당포에 이르니 일본군 반수는 성 안에서 분탕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사격하였다. 적군의 대선 9척과 중소선 12척이 정박되어 있었는데 이를 모두 불태웠다.

대장선으로 보이는 전함은 붉은 비단휘장을 들렀고 그 위에 황금색 글자가 씌어 있었다.

17) ‘조선시대 경상도 고성지역 수군진포와 남촌진(적진포)’, 2014년 1월 24일, 고성문화원 주최.

돌격장 이기남이 거북선을 돌진하여 대장선을 쳐부수고 현자천지총통을 쏘고 대장군전을 쏘아 격파하였다. 순천부사 권준은 적장을 화살로 쏘아 떨어뜨렸으며 홍양보인 진무성이 그 적장의 머리를 베었다. 이에 적군은 사기가 떨어져 달아났으며 철환에 맞고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 이때 우후 이몽구가 왜선을 수색하여 가메이 코레노리의 금부채를 발견하였다.¹⁸⁾ 즉, 가메이의 군대가 사천을 비롯하여 당포부근까지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투 이후 척후선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수십 척이 거제도로부터 들어온다고 하여 출동하였으나 적군은 아군을 보자 달아났다. 날이 저물어 창선도에 머물렀다.

5일 아침 일찍 거제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에는 이역기가 이끄는 전라우수군이 합세하여 51척을 이끌게 되었는데 군세가 두 배로 늘어났다. 거제에 사는 향화인 금모(金毛) 등 78명이 소선을 타고 마중나와 말하기를, ‘당포 앞바다에서 쫓긴 적함이 거제를 지나 고성 당항포에 있다’ 고 하여 당항포 앞바다에 이르러 동쪽 멀리 진해 쪽을 바라보니 성밖 들뜬에 무장한 적군 천여 명이 깃발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관군으로서 함안군수 유승인이 기병 1천 1백명으로 적을 쫓아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이에 당항만 입구에 전선을 매복시키고 당항만으로 진격하였다. 소소강(召所江) 입구에 이르자 흑색 칠한 대선 9척과 중선 4척, 소선 13척이 정박해 있었다. 대선에는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 이 써 있었는데 아군 함대를 보자 철환을 마구 쏘았다. 돌격장 이기남이 거북선을 이끌고 가서 천자지총통을 쏘고 총통과 화살을 쏘아댔다.

이순신은 적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염려하여 거짓으로 후퇴하게 하였다. 적의 대선이 아군이 일부러 열어 놓은 길로 달아나자 사방으로 포위하여 협격하였다. 거북선이 당파하고 화공으로 불태운 후 적장을 화살로 쏘아 죽였다. 다른 적함 4척이 달아나자 이순신과 이역기는 휘하 장수들을 양 날개로 구분하고 적선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이에 적군은 물에 빠져 죽고, 해안으로 상륙하여 달아나거나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일부러 적선 1척은 쫓지 않고 날이 어두워져 바다 어귀로 나와 진을 치고 밤을 췌다. 다음날 6일, 방담첨사 이순신이 당항포 바깥 어구에 이르니 적선 1척이 바다 어귀로 나오므로 기습하여 쳐부수고 적장을 화살로 쏘아 죽였다. 다음 날인 7일은 율포(栗浦)해전이 있었으며 적장 구루시마 미치히사[來島通久]를 참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 3절 고성의병에 관한 사료 검토

: 『雙忠錄』과 『雙忠實紀』

18)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唐浦破倭兵狀』.

<요> 『雙忠錄』과 『雙忠實紀』의 구성과 내용

『雙忠錄』(1823刊)		『雙忠實紀』(1929刊)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世系	1世~20세까지의 世系圖	重刊雙忠實紀編定總例	중간한 이유와 수정·편집된 내용 사례 서술		
권1	詩	先系	始祖 및 1代~10代祖까지의 행적을 기록		
			事實	送季弟汝堅珮赴舉	
				次姜渭瑞應璜想思詞四首	
				次徐藥峯渚韻渭瑞	
				次姜渭瑞見贈	
				詩	贈姜渭瑞
					亂定後歸故山
					與季弟自京還鄉
	投筆				
	書	遺稿		喜孫兒生二首	
				與姜士盍稱○ 壬辰	
				與姜士盍	
				答姜士盍	
			書	答姜渭瑞 壬辰	
				答姜渭瑞 乙未	
				答姜渭瑞	
				答姜渭瑞 丙申	
			實記	狀	上觀察使狀
					行狀二
			墓碣銘二		
권2		권2	家乘		
			敘述		
	遺事		蘇湖公遺事		
			蘇溪公遺事		
	補			挽蘇溪二	
本縣邑誌		贈職焚黃韻			

	遺	趙公慶男山西雜錄 徐藥峯滌與姜白川書 李忠武公舜臣與姜白川書 察訪公諱振虎蘇湖公季子答姜松窩書			教加里浦僉節制使崔罔書 宣武原從功臣錄勳 教書 道儒請贈 上言 本孫請贈 上言									
권3 附錄	敎書	敎加里浦僉使崔罔書	권3	褒典	禮曹回 啓 禮曹關文 禮曹再 啓 教旨二 焚黃告由文二 請諡 上言後禮曹回 啓 諡狀二									
	行狀	蘇湖公行狀 蘇溪公行狀 狀後識			褒典	諡狀 教旨 宣諡時告由文二 請旌 上言後禮曹回 啓 禮曹立案								
	碣銘	蘇湖公碣銘并敍 蘇溪公碣銘并敍				권4	祠院	祠宇上樑文 講堂重修上樑文 奉安文二 常享祝文二 祠宇重修上樑文 祠宇重修記 還安告由文二						
	詩輓	姜松窩 ^傳 贈蘇湖公 輓蘇溪公						권5	從遊諸賢錄 倡義諸賢錄					
		道山祠奉安文 常享祝文								雙忠實紀舊本跋				
	권4	附									祠宇上樑文 講堂重修上樑文 雙忠錄跋二首 道內士林呈營請褒狀 本縣士林呈繡衣金學淳請褒狀 請 贈時道儒上言 本孫請 贈上言	권5	從遊諸賢錄 倡義諸賢錄	雙忠實紀重刊跋
											啓目			
禮曹再 啓														
敎旨			증직교지(최근) 증직교지(최강)	從遊諸賢錄 倡義諸賢錄	雙忠實紀重刊跋									
			奉安文			蘇湖公奉安文 蘇溪公奉安文								
遺墨後敍						雙忠實紀重刊跋								

고성지역 의병활동의 주축은 최근·최강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료로서 1823년에 간행한 『쌍충록』과 1929년에 간행한 『쌍충실기』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료는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쌍충록』 간행 이후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 『쌍충실기』 간행시 이러한 추가 내용을 반영하였다. 『쌍충실기』의 「중간쌍충실기편정총례(重刊雙忠實紀編定總例)」는 추가된 내용 및 목차 구성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예컨대, 『쌍충실기』 권2의 「가승(家乘)」·「서술(敘述)」·「유사(遺事)」는 『쌍충록』 권2의 「용사창의사적(龍蛇倡義事蹟)」·「제주승전사적(濟州勝戰事蹟)」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근거로 삼았던 출처별로 분류하여 각각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권5의 「종유제현록(從遊諸賢錄)」·「창의제현록(倡義諸賢錄)」은 이 책에서 고증된 것만 가려서 새로이 구성하였다.

『쌍충록』과 『쌍충실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권1의 「서(書)」이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주고받은 간찰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최균·최강 형제와 간찰을 주고받은 인물은 강칭(姜僞)과 그의 아들 강응황(姜應璜)이다. 강칭의 자는 사양(士盎), 호는 송와(松窩)이며 강응황의 자는 위서(渭瑞), 호는 백천(白川)이다. 그런데 이 간찰의 내용 및 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아래의 『쌍충록』에 수록된 간찰 원문은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이다.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鳳城分手後臺樹蒼蒼送君舍情物非人而如是則人可以勿不如哉耿耿兵燈不寐者久矣已而帳外有聲開戶視之豚兒來到忽傳半百里心既三復燈前如對吾尊合席娓娓而欣然有喜色矣不料金別將且擎一千里手滋初聞驚愕茫然開緘是乃行施後平安消息而問術於愚矣然吾尊之出兵古之太公兵仙則餘外秘策問於天問於地問於神而何問於庸陋一賤姿乎如愚之愚向者鼎津軍伍既失偶與趙君宗道郭君再祐纔到本營雖有對壘之舉卯君月前與別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熊川鎮而尚未返營心甚訝鬱示中興兒起送之教不啻慰勸情誼而振兒以子弟軍官昨送熊川鎮手下無人未副盛教茹恨爲如何哉惠來想思詞律忘拙和呈豈無一粲笑耶詩見上餘不備洞下散人均拜¹⁹⁾

첫째, 간찰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다. 본문에 ‘이통사(李統使)’라는 단어가 있다. 이통제사(李統制使), 즉 이순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제사(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은 1593년 8월 15일 이순신이 최초로 임명되면서 생겼다. 그런데 이 편지는 임진(壬辰)(1592) 10월 13일에 쓴 것으로 이때는 통제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모순이다.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책 간행 당시의 관점에서 명칭을 바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이를 『쌍충실기』에 실린 원문과 비교해본 결과, 『쌍충록』에 비하여 『쌍충실

19) 『쌍충록』 권1,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기』는 간찰의 글자를 바꾸거나 여러 부분에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앞서 다루었던 ‘이통사(李統使)’가 『쌍충실기』에는 ‘이수사(李水使)’로 수정되어 있으며, 권을 가리키는 ‘권원수(權元帥)’²⁰⁾가 ‘권광주(權光州)’²¹⁾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의 □칸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쌍충실기』에서는 누락된 부분이다. 간찰의 내용이 곳곳에서 누락되었음에도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구본(舊本)(쌍충록)을 참고했음에도 이 정도로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비단 위의 본문 뿐 아니라 모든 간찰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여강송와(與姜松窩)」·「답강송와(答姜松窩)」이 두 간찰 내용은 『쌍충실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셋째, 간찰의 작성한 날짜를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간찰의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인데, <표>의 권1, 「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쌍충록』에는 정확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쌍충실기』에는 이를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찰의 작성시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가 壬辰(1592) 10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편지의 내용에 “아우(최강)가 이달·안신갑과 한 달 전에 웅천의 李統使(이순신)를 구원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순신의 수군과 연계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전투를 벌인 시기는 1593년 2월-3월이다. 이 답서를 쓴 10월 13일은 1차 진주성전투(10월 5~10일)가 끝난 직후인데, 최강·이달은 이 진주성전투를 외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진(담티고개)에 있던 최균이 몰랐을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진주성 수성방략에 따라 임란 초부터 1차 진주성전투를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진주성 주변에서 활동했던 최강·이달 부대가 갑자기 9월 즈음부터 한 달 가량 웅천에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대로 최강·이달·안신갑 등이 웅천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일까. 앞서 서술하였듯이 1593년 2~3월,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육상군과 협력하여 한 달 이상 웅천에 머무르며 수륙양면으로 적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²²⁾ 이순신이 1593년 2월에 올린 장계²³⁾에는 수륙 합공을 위해 이미 경상우도순찰사(김성일)에게 공문을 보내 병마를 거느리고 웅천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성일의 지휘 하에 있던 최강·이달 부

20) 『쌍충록』 권1, 書, 「答姜松窩書 壬辰臘月十七日」.

21) 『쌍충실기』 권1, 書, 「答姜士盎」.

22) 『난중일기』 癸巳年 2월 18~20일·3월 6일.

23)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대가 이때 웅천으로 부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달의 『운포실기(雲圃實紀)』에는 그의 집안 기록인 『가승(家乘)』과 『쌍충록』을 전거로 하여 웅천에서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구원하러 이달·최강·안신갑이 함께 갔다고 하였다.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二十六年癸巳二月(1593년 2월)

李舜臣進攻倭人於熊川 義兵將李達·崔峒·安信甲往救之 前後八戰 敵勢大挫家乘

蘇湖崔公答姜應璜書略曰 月前卯君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于熊川鎮而 尚未返營心甚訝鬱云 云雙忠錄²⁴⁾

특히 『쌍충록』을 전거로 밝힌 기사는 위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적을 1593년 2월의 기사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쌍충록』을 근거로 직접 내용까지 인용하였으나 그 행적의 시기만큼은 다르게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壬辰 10월 13일)는 최강·이달 부대가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던 사실, 이순신 수군이 육상군과 연합하여 치른 웅천전투, 『운포실기』에 수록된 사례 등을 참고해 보면, 계사년(1593) 2월~3월 사이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부분은 『쌍충실기』에 수록된 「상관찰사장(上觀察使狀)」²⁵⁾이다. 이 문서는 『쌍충록』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발견되어 『쌍충실기』에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최강이 1592년 7월 초에 고성에서 왜적과 전투한 결과를 관찰사 김수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탁영의 『정만록(征蠻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탁영은 김수의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몇 곳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자.

‘固城縣伏兵將崔峒馳報內 倭賊二千餘名 今七月初三日 分三運入來爲去乙 率軍五十餘名 先運接戰射中三倭 賊勢暫退 老弱軍乙良 專數登山 更率精勇軍三十餘名 一時隱伏要路處 多設弓弩 村家焚蕩回軍時 先鋒二倭亦逢弩致死 賊徒載去中路虜燼爲乎所馳報是白齊’²⁶⁾

24)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二十六年癸巳二月.

25)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上觀察使狀」.

26) 『정만록』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위의 전문은 두 사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쌍충실기』에 실린 내용에는 글자가 결실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정만록』에는 ‘칠월(七月) 초삼일(初三日)’로 기록되었으나 『쌍충실기』에는 ‘칠월(七月) 초결일(初缺日)’이라 기록되었다. 또 『정만록』에는 ‘솔군오십여명(率軍五十餘名)’이라 하였으나 『쌍충실기』에는 ‘솔군이십여명(率軍二十餘名)’이라 하여 거느린 군사의 수가 30명의 차이를 보인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만록』의 기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에 보이듯이 처음에 50여 명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노약한 군사를 산으로 올려 보내고 30여 명의 정용군으로 싸웠다고 하였다. 만일 『쌍충실기』의 기록대로 처음에 20여 명을 거느리고 싸웠다면 노약군을 산으로 보낸 후에는 20여 명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30여 명으로 싸웠다고 하였기 때문에 『쌍충실기』의 기록이 오자(誤字)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자가 결실되거나 틀린 것은 『쌍충실기』 간행 당시 이 문서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글자 판독이 되지 않거나 오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쌍충록』 · 『쌍충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자료들의 간행과정에서 고의적 가감, 또는 오판 등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할 경우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제 4절 의병의 활동

1) 의병의 조직과 특성

고성에서의 창의(倡義)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등 사족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전주최씨 문중이 고성에 처음 자리 잡은 시기는 16세기 초, 최균·최강의 부친인 최운철(崔雲哲)이 이사하면서부터이다. 즉, 구만(九萬)의 곤계봉(昆季峰)아래에 집터를 정하고 ‘소대(蘇臺)’라 하였다. 함안이씨 문중은 9세손 인형(仁亨)·의형(義亨)·예형(禮亨)·지형(智亨)이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무오·갑자사화로 인해 화를 입고 낙향하여 고성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후로는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던 것이다.²⁷⁾

재지사족으로서 전주최씨와 함안이씨는 고성에서의 입지가 확고한 만큼이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을 찾아가 기병할 의지를 보였고 최균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하였다. 우

27) 『쌍충실기』 권1, 「行狀」; 최명철, 「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관한 연구-최균, 최강, 이달을 중심으로-」(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4).

선 최균의 아우인 최계(崔埴)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케 하고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을 뽑았다. 그리고 가산을 풀어 고을의 장정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²⁸⁾

이달의 경우는 1591년 10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란이 발생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했다가 잠시 돌아와 보니 부친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다. 이에 분개하여 상중(喪中)임에도 의병을 일으켜 최균·최강의 부대와 연합하였다. 이달의 수하 병사들은 가동(家僮)들과 향리(鄉里)의 장정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달의 부친이 생전에 가동들과 마을의 소년들에게 궁시를 나누어주며 사냥을 장려하고 추석과 단오에 씨름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등 용맹함과 건장함을 길렀다고 한다.²⁹⁾ 이들이 모두 이달의 휘하 군사로 편성되어 최균 부대로 달려왔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가족, 친인척, 향리의 친우(親友)들로 조직되었으니 고성의병도 이러한 양상이었다. 이달은 최균의 백부(伯父)의 외손자로서 종생질(從甥姪)이었다. 안신갑의 경우는 최균의 여동생의 아들로서 생질(甥姪)이었으며 최균의 조카·사위, 아들들이 즐비하였다. 박연홍·최한·정준 등은 고을의 장사(壯士)들로서 자원하여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아래의 <표>³⁰⁾는 의병 지휘부의 출신과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의병의 구성>

직책	성명	성분 및 역할
의병장	崔均(1537~1616)	전략 및 군량조달 담당
의병장	崔峒(1559~1614)	최균의 아우, 선봉장
의병장	李達(1561~1618)	최균의 從甥姪, 선봉장
의병장	安信甲	최균의 甥姪, 선봉장
군관	朴連弘	密陽人
군관	崔儻	全州人
군관	丁俊	昌原人
군관	崔興虎	최균의 장남
군관	崔勇虎	최균의 從姪
군관	崔角虎	최균의 조카(균의 아우 埴의 아들)
군관	崔振虎	최균의 막내아들
군관	徐舜凱	최균의 사위, 문서·금전출납 담당

최균·최강 의병조직의 운영상의 특성은 이원적 구조로서 유격전과 방어전을 나란히 진

28) 『쌍충실기』 권2, 「家乘」.

29)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30) 『쌍충실기』 권2, 「家乘」; 권5, 「倡義諸賢錄」.

행하였으니, 최균은 본가인 소대계상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략에 따라 담티고개³¹⁾로 진을 옮겨서 이곳을 본영으로 삼고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본영)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인 진주·사천·진해·웅천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중흥무진하였다.

즉, 최균은 50대 중반의 고령이기 때문에 유격전보다는 그의 식견을 바탕으로 계책을 세우고 군량조달을 담당하였다. 담티고개는 고성과 진주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서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요로(要路)였다. 길이 좁고 산이 험준하여 “이곳이야 말로 지키기도 좋고 적에게 속임수를 쓰기도 쉽다” 라며 ‘풍운장(風雲將)’이라 써서 길목에 달아 놓았다. 군량조달을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고개에 올라 여러 가지가 달린 횃불을 들게 하여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듯 했다가 다시 불켜기를 반복하는 등 적군을 교란시키는 의병책(疑兵策)을 구사하기도 하였다.³²⁾ 이처럼 담티고개 방어는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를 본거지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활발히 부원하였으니, 임진년 5월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김대명·한계·정승훈 등과 합세하여 고성·사천을 점령한 일본군을 웅천·김해까지 축출하였으며, 7월 진주를 침범하려던 적군에 대항하여 김시민군과 합세하여 진주로부터 고성까지 추격하였다.³³⁾ 이후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을 압박하자 며칠 후 일본군은 창원까지 퇴각하여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0월 1차 진주성전투 당시에는 망진산으로 진출하여 진주성을 포위한 일본군을 견제하였으며 이달은 두골평(頭骨坪)에서 적군을 무찔렀다.³⁴⁾

1593년 2-3월에는 수군과 연계하여 전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니 최강·이달·안신갑 등이 웅천(熊川)으로 가서 이순신의 수군과 수륙양면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난중일기』에 의하면 수군은 2월 6일 배를 출발하여 10일 웅천 앞바다에 이르렀으나 적들이 응전해오지 않아 여러 차례 유인하였으나 수비에만 전념하였다. 이후 2월 18-20일 사이 2차례 공방전이 있었고 3월 6일 수군이 출격하니 적들이 육지로 달아나 산허리에 진을 쳤다. 이에 육지의 관군들이 탄환과 편전을 쏘아 많은 적을 무찌르고 사천 여인 한명을 구출했다고 한다.³⁵⁾ 이날 육전에 참여한 관군들 가운데 최강·이달·안신갑 등 고성의병들도 포함되었

31) 현재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에 소재하는 곳으로서 『고성지』에 ‘塙峙 在九萬 蘇湖崖均 壬亂留陣處 石築周圍 約一里許’ (『고성지』 권1, 古蹟)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담티재성지에 성벽이 길이 50m, 너비 2m 규모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118-119쪽)

32) 『쌍충실기』 권2, 「家乘」.

33) 『征蠻錄』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34) 『난중잡록』 2, 壬辰 10월 6일.

35) 『난중일기』 癸巳年 2월 18-20일·3월 6일.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한 달 정도 웅천에 머물면서 이순신의 수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행적이 있기 때문이다.³⁶⁾

최균·최강·이달·안신갑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은 고성을 대표하는 의병의 사례로서 구만동 담티고개를 본진으로 하여 최균을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세우고 군량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강·이달·안신갑을 중심으로 정예부대를 꾸려 고성 주변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유격전을 펼쳤다가 담티고개로 회군하여 군사를 정비하였다. 이는 의병의 장점인 지리를 이용한 유격전술을 구사하면서 담티고개에 병참기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병진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즉, 안정적인 군수·군량 보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격전을 펼 수 있었으니 그 전력(戰力)이 배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군과 연합하여 토적활동을 하는 등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사천·진해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고성의병의 활동상이 기록된 『쌍충실기』 및 『운포실기』 등을 토대로 보면 그 규모가 수백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강이 관찰사 김수에게 보낸 서장(書狀)³⁷⁾에 의하면 최강 부대가 50명 또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고성의병의 특성에 잘 나타나듯이 최강이 이끌고 다니던 정예부대의 인원에 불과한 것으로 담티고개에 상주하여 병참활동을 하던 의병은 그 활동상이나 병력의 수효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구만 · 척현 전투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휘하 군관으로서 박연홍·최한·정준 등과 문중자제인 용호·각호·진호 등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이 함께 하였다. 그 외의 가족들은 둘째인 최계로 하여금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가게 하였다. 최강은 최균의 권고에 따라 박연홍과 함께 우선 고성군수에게 알현한 후 무기 등을 지원 받아 구만동으로 돌아왔다. 이때 적군이 이미 마을을 침략하여 분탕질하고 있었으니 당시 고성 지역을 침범한 일본군은 원군의 경상우수군을 깨뜨리고 4월말 경 배둔 부근으로 상륙하여 구만(九萬)·마암(馬巖) 등 여러 갈래로 진군하였다. 최강은 일본군의 분탕질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가령(反加嶺)에서 어린 조카 정호를 구출하였다. 한편, 최균은 그의 본가인 소대(蘇臺) 계상(溪上)(구만면 효락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최강이 도착하자 즉시 군사를 정비한 후 적군을 공격하여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시켰다.³⁸⁾

36)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6년(癸巳) 2월;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答姜涓瑞」 壬辰 蘇湖.

37) 『征蠻錄』 坤, 承政院 開塚(7월 15일).

5월 8일,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와 신천(新川)에 사는 이응성(李應星)의 처 나씨(羅氏)부인이 순절하였고 까치골[작지동(鵲旨洞)]에 사는 나응벽(羅應璧)·나언린(羅彦麟)·나치문(羅致紋) 등 나씨 일가가 일시에 참화를 당하였다.³⁹⁾ 이응성은 이달의 재종숙(再從叔)으로 당시 북관에서 정문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씨 일가의 참화소식에 마암에 있던 이달이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달려와 최균·최강·안신갑 부대와 합류하여 나씨 일가를 점거한 일본군을 공격하여 청암(淸巖)까지 쫓아내었다.⁴⁰⁾

5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로 관군과 의병의 규합이 이루어지고 진주성 방어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김시민·곽재우·조종도·최균·최강 등 경상우도의 관·의병이 이 전략에 따라 낙동강 및 사천·고성·진해 등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⁴¹⁾ 진주성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로서 진주를 지키는 것은 적침으로부터 유일하게 보전된 호남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고성의병이 본진을 소대계상에서 담티고개로 옮기게 된 시기도 김성일이 부임하여 지휘를 시작한 5월 말경이었으니 진주성 방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담티고개는 유격전을 펴기 좋을 뿐 아니라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적군이 진주로 가는 길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5월~8월 경, 사천성에는 가메이 코레노리, 고성성에는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각각 점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여러 해전에서 조선수군에 패배한 일본군이 황급히 상륙하여 고성·진해 등지를 횡행하고 있었다.

7월 초3일, 고성의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진격하자 최강은 50여 명을 이끌고 적군 선발대와 싸워 3명을 쏘아 맞추고 격퇴시켰다. 이어서 늙고 약한 군졸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정예병 30여 명으로 요로에 매복하여 궁노(弓弩)를 설치하였다. 마을을 분탕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맞아 2명을 쏘아 죽이자 적이 퇴각하였다.⁴²⁾

7월 초7일, 김시민이 이끄는 부대가 고성으로 진출하였을 당시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법천(法川), 척현(尺峴), 조현(鳥峴)으로 각각 진격하였다. 이에 복병장 정유경(鄭惟敬)이 좌우로 공격하여 척현 밑에서 적군의 선봉 20여 명과 교전하던 중 척현 위에 있던 적군 70여 명이 내려와 구원하여 퇴각하였다. 이에 활을 끊임없이 쏘아 적군에 중상자가 많았는데 길이 좁고 험하여 비록 머리는 베지 못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여 민가를 보전하였다.⁴³⁾ 8월

38) 『쌍충실기』 권2, 「家乘」;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39) 『쌍충실기』 권2, 「遺事」.

40)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與姜士崧-偁 壬辰-」(蘇湖蘇溪).

41)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쌍충실기』 권1, 「事實」.

42) 『征蠻錄』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43) 『정만록』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晉州判官金時敏馳報內 今七月七日 固城留屯倭賊 分三運 一運

에 적군이 다시 진해·고성·사천을 점령하자 김시민을 중심으로 최균·최강·이달의 부대가 합세하여 사천의 적을 추격하자 고성성으로 돌아났다. 이에 대군령을 넘어 고성성의 적을 압박하였고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며칠 후 퇴각하여 진해의 적과 함께 돌아났다. 이들을 추격하여 소평태(小平太), 해문(解文), 영힐(穎黠) 등 적장 3명을 생포하여 함안으로 돌아왔다.⁴⁴⁾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삼국 간의 강화 교섭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지역으로 후퇴하여 울산·서생포·동래·기장·두모포·양산·죽도·안골포·가덕 등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고성을 비롯한 웅천·김해·창원·함안·진주·사천·곤양 등지는 수시로 출몰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었다.⁴⁵⁾

3) 진주성전투와 고성의병의 역할

(1) 제1차 진주성전투

진주성전투는 두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제1차 전투는 1592년 10월 5~10일 ‘진주대첩’이라 하여 조선 측이 진주성을 잘 지켜내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에 대한 보복전을 명하여 이듬해 6월 21~29일 제2차 전투가 발발하였으며 이때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수만의 조선 군민들이 전사하였다.

1592년 4월, 일본군은 15만여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였다. 개전 초, 일본군은 20일 만에 도성을 함락하고 이어서 북상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평양성을 점령,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함경도로 진격하는 등 호남을 제외한 조선 전역을 빠르게 제압하였다.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은 1592년 10월, 1차 진주성전투에서 진주목사 김시민을 필두로 한 조선군이 굳게 성을 지켜 일본군을 격퇴시켰기 때문이다. 진주성은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성(守城)에 성공함으로써 곡창이었던 호남을 보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戰局)의 흐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1차 전투에서는 일본군 약 2만 명⁴⁶⁾으로 진주성을 공격하였고 조선군은 수성군이 약 3천

來于法川 一運向于尺峴 一運往于鳥峴等處爲去乙 伏兵將鄭惟敬

44) 『쌍충실기』 권2, 「敍述」(嶺營古蹟); 『고대일록』 권1 萬曆壬辰 秋9월 20일, 적장의 이름이 『쌍충실기』에는 ‘平小太’로, 『고대일록』에는 ‘小平太’로 기록되었다. 『고대일록』에는 그 외에도 解文, 穎黠 등 더 많은 적장의 이름을 밝혀 비교적 소상하므로 본문에서는 『고대일록』의 기록을 따라 小平太로 서술하였다.

45)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辛巳(21일).

46) 1차 진주성전투 당시 일본 공성군의 규모에 대하여 『난중잡록』, 『학봉집』 등에는 약 3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형석은 일본 측 사료인 『征伐記』·『秀吉譜』·『黑田家記』 등을 근거로 약 2만 명으

8백 명, 주로 의병으로 구성된 외원군 약 3천 1백여 명, 그리고 수만의 백성으로 방어하여 1592년 10월 5일~10일까지 6일간의 전투를 치렀다.

<제1차 진주성전투 朝日 병력 비교>

일본군		조선군	
가토 미쓰야스 나가오카 타다오키 하세가와 히데카즈 기무라 시게치 등	약 20,000명	<수성군> - 진주목사 김시민 판관 성수경 곤양군수 이광악 전만호 최덕량 등	약 3,800명
		<외원군> ⁴⁷⁾ 윤탁, 광재우, 정언충, 심대승, 최경희, 임계영, 신열, 정기룡, 조정형, 조응도, 최강, 이달, 김준민, 정방준	약 3,100여 명
약 20,000명		약 6,900여 명	

이때 일본군의 전술과 관련하여 사용된 주요 공성기구는 윤전산대(輪轉山臺), 죽속(竹束), 죽제(竹梯) 등이었다. 3층 높이의 윤전산대 꼭대기에서 성안을 향해 조총과 궁시로 공격하기도 하고, 죽속으로 방어책을 구축한 다음 조총을 발사하여 성가위의 수성군들을 살상·견제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기어오르는 등성법(登城法)을 구사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진천포, 질려포, 총통 등으로 공성기구를 파괴하고 불태우며 항전하였다. 일본군이 조선군에 비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성 주변에서 외원(外援)하는 군사들이 3천명 이상에 달하여 일본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1차 진주성전투 6일간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월 5일 - 일본군 선봉 1000여 명이 진주성 동쪽 마현의 북쪽에서 정찰을 하고 돌아갔다. 목사 김시민은 큰 용이 그려진 깃발을 세우고 노인과 여자들도 남장하여 병력이 많은

로 추산(『임진전란사』中卷, 제1차 진주성전투)하였으며, 『日本戰史朝鮮役』(본편, 208~211쪽)에도 2만 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北島万次는 小瀬浦庵의 『太閤記』(권14, 「木曾判官城責之事」)를 근거로 1만 3천 명이라 하였다(「제1차 진주전투의 경위와 제2차 진주전투의 요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2010). 본고는 2만 명의 규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 측 여러 사료의 기록이 그러하며 각 장수가 거느린 병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47) 외원군의 규모에 대한 내용은 지승중, 「16세기말 진주성전투의 배경과 전투상황」(『경남문화연구』 17, 경남문화연구소, 1995)의 <표 1>을 참조하였다.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일본군이 동쪽 10리 지점 임연대에 진을 쳤다.

6일 - 아침 일본군은 3개 부대로 나누어 첫 번째 부대는 동문 밖 순천당산에 진을 치고, 두 번째 부대는 봉명루 앞에 진을 쳤고, 세 번째 부대는 두 부대 사이에 진을 쳤다. 나머지 병력은 주변의 산에서 성원하였고 공방전은 밤까지 이어졌다. 성밖에서 응원하던 조선 군도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북을 치며 응원하였다.

7일 - 적군이 종일 성을 공격하는 한편 주변 민가를 모두 소각하였다. 밤에는 사로잡은 아이들을 시켜 '서울이 함락되고 8도가 무너졌으니 빨리 항복하라' 고 하면서 심리전을 폈다. 김시민은 이에 대응하여 악공을 시켜 거문고를 타고 통소를 불도록 하였다. 적이 밤에 토루를 성벽 높이로 쌓아 그 위에서 총포를 발사하였다.

8일 - 적군이 수천 개의 사다리를 놓고 성에 올랐다. 바퀴달린 산대를 이용하여 돌격하는 적을 현자총통을 발사하여 부수고 돌과 끓는 물, 화약을 이용해 적을 물리쳤다. 밤중에 조응도와 정유경의 부대가 진현에서 응원하였고 일본군은 원군의 진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9일 - 전투중 적군의 일부는 단성·단계·살천 등지로 가서 분탕질을 하였는데 김준민·정기룡 부대가 이를 격퇴하였다. 최경회·임계영 부대가 도착하여 적군의 측면을 공격함으로써 공성을 견제하였다.

10일 - 일본군이 총공격을 감행하여 동쪽 성벽에 1만여 명이 육박해 왔다. 김시민은 북장대, 성수경은 동문 용성에서 지휘하며 적을 막았다. 한때 구북문의 수비가 무너졌으나 최덕량, 이눌, 윤사복 등이 총력을 다해 물리쳤다. 동이 틀 무렵 김시민이 총탄에 맞자 곧 양군수 이광악이 대신 지휘하여 쌍견마를 탄 적장을 사살하였다. 이에 적군은 퇴각하였고 김시민은 며칠 후 순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군을 퇴각시키고 승리할 수 있었으니 수성군 뿐 아니라 외원하는 군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성 의병의 경우는 진주성의 남쪽에서 활약하였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성(固城) 의병장 최강(崔綱)·이달(李達) 등이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주를 응

원하다. 최강이 밤에 망진산(網陣山)에 올라서 군사들로 하여금 각기 4, 5개의 횃불을 들고 흑 나갔다가 물러갔다 하며 북을 두드리고 고함은 치매 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하니 적병이 놀란다. 성중의 군사들이 들고는 기뻐 날뛰며, “이는 반드시 고성 의병장 최강·이달이 와서 응원하는 것이다.” 하다. 이달이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두골평(頭骨坪)에 진을 치고 마구 공격하여 베어 죽이다.⁴⁸⁾

고성의병은 진주성 남쪽의 망진산에 올라 적을 위협하며 견제하였다. 이 진주성전투 당시의 활동은 이미 5월부터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 관군 및 의병이 연합하여 사천·고성 등 진주성 주변에서 왜적을 퇴치해왔던 연장선상에 있었다. 진주대첩으로 일컬어지는 1차 진주성전투는 조선 측이 일본군을 격퇴시켜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일본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당시 호남지역은 유일하게 보전된 곳으로서 곡창지대이자 국난극복의 동력이 될 곳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마지막 남은 호남을 차지해야만 명나라로 복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일본군은 비록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거하였지만 이에 대항하는 여러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기습하거나 군수물자 보급을 저지시켰다. 둘째, 조선 수군의 남해안에서의 연전연승으로 일본군의 작전을 와해시켰다. 셋째, 명군의 출병으로 일본군에 대적할 대군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전황(戰況)으로 일본군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경상도 연해지역으로 철군하여 성을 쌓고 장기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있는 장수들에게 전라도 및 진주성 공격을 지시하였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군량미도 없고 진을 치는 것도 어려워진 것은 부산포와 도성 사이에서 赤國(전라도)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므로 하시바 아키 재상, 고바야카와 시중, 규슈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곳을 차지할 것(1593년 2월 27일).⁴⁹⁾

2- 부산포 · 김해 · 웅천포 · 창원에서 진주성을 공격할 진까지 군사들의 식량보급에 지체됨이 없도록 연락을 확실히 할 것, 전년도 공격에서 실패한 성이므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일 것(1593년 4월 12일).⁵⁰⁾

48) 『난중잡록』 2, 壬辰 10월 6일.

49) 『일본전사조선역』(參謀本部(復刻板), 昭和53年) 文書 제96호, 98~100쪽.

50) 위의 책, 文書 제110호, 120~123쪽.

예문 1에서 군량미가 없는 것은 부산으로부터 도성까지의 보급로가 끊겨 군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赤國(전라도)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1592년 9월 말부터 전라도의병이 경상도에 내원(來援)하여 개령·성주, 선산 등지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활약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개령·성주지역은 부산과 도성을 연결하는 여러 성의 중간지점으로서 군량·군수물자 보급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점령군 가운데 경상도 지역을 담당한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가 개령에 주둔하여 성주·선산 등을 지휘하였고, 전라도 의병이 이 지역을 공략하려 했던 것도 지리적·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임계영을 주장으로 한 전라좌의병, 최경회를 주장으로 한 전라우의병은 경상우도로 진군하여 1592년 10월, 1차 진주성전투 때 단성과 살천창 부근에서 외원(外援)하였다. 적을 물리치고 수성에 성공하자 곧장 김면·정인홍군과 연합하여 본격적으로 개령·성주지역을 공략하였다. 10월 20일~12월 2일에 이르는 동안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수십 급을 참수하였다.⁵¹⁾ 이어서 최경회의 전라우의병은 개령의 적을 방비하고 임계영의 전라좌의병은 12월 14일, 성주성의 적을 들판으로 유인하여 거의 괴멸시켰다.⁵²⁾ 이 전투로 인해 성주성의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1594년 1월 15일 성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이에 조선 측은 성주성을 수복하였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400여 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개령의 적을 공격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고 조선인 400여 명을 구출하기도 하였다.⁵³⁾ 개령을 수복하고 승세를 타고 진격하여 4월에는 선산까지 수복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연해지역으로 철군하게 되었으니 전라도 의병의 일단의 목표가 관철된 셈이었다.

도성과 평양성까지 진출해 있던 일본군은 전라도 의병의 활약으로 군량보급이 끊어지고 후방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한편, 1593년 1월, 평양성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자 일본군은 여러 측면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 전역의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지역으로 철수하였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를 먼저 공략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첫 번째 관문인 진주성을 철저히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더구나 진주성은 전년도에 일본군에 패배를 안겨준 곳이기 때문에 주요 병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길 것을 강조하였다.

예문 2의 내용은 진주성 공격을 위해 주변에 있는 일본군영으로부터의 군량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명령에 따라 6월 14~15일, 창원에 주둔해 있던 일본

51) 『亂中雜錄』 2, 癸巳 5월 24일; 『孤臺日錄』, (萬曆壬辰) 11월 4일.

52) 『孤臺日錄』, (萬曆壬辰) 12월 15일.

53) 『난중잡록』 2, 癸巳 1월 15일.

군이 함안으로 돌진하였고 이빈·권율·선거이 등의 조선군은 함안에서 의령으로 퇴각하였다. 또 부산·양산·김해의 일본선단 7~800여 척이 옹포·제포·안골포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미처 다 요격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 즉, 조선수군이 거제 앞바다에 진을 치면 바깥쪽으로 돌아서 침입할 우려가 있으며 바깥쪽에 진을 치면 안쪽 연해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일본수군을 막아낼 수 없으므로 견내량·한산도 등지에 물러나서 진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후 23일은 거제의 영등포·송진포·장문포·하청·가리(加里) 등지로 옮겨 길게 진을 치기도 하였다.⁵⁴⁾ 이러한 일본군의 동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군량보급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선 수군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진주성 공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6월 중순 경 김천일, 최경회, 황진, 고종후 등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였다. 의령에 있던 이빈, 권율, 선거이 등은 진주성 방어 대책을 논의하며 곽재우에게 수성할 것을 명했으나 곽재우는 전략상 무모함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일본 측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關白(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진주성을 공격해야 하니 성을 비워 그 화를 피하라는 이른바 공성책(空城策)을 제시하였다. 즉, 성을 비워주면 일본군은 진주성만 점거할 뿐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명군은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따라서 일본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선의 이빈·권율 등도 명군의 지휘를 받고 있던 터라 달리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산음으로 퇴각하고, 선거이는 진주성에 와서 성을 비워 군사를 보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김천일이 크게 꾸짖자 함양으로 퇴각하였다.⁵⁵⁾ 의병들이 진주성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진주성이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니 김천일이 진주성을 지킬 것을 호소하였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왜적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주만 공격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대저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 마치 순치(脣齒)와 같다 하겠소. 만일 이곳을 버리고 가서 왜적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든다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까지 미칠 것이니, 힘을 합쳐 견고하게 지켜서 왜적의 세력을 막는 것이 나을 것이오.”⁵⁶⁾

이러한 의병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군은 퇴각하였고 명군은 대구·상주·남원에 각각 주둔하여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듯 2차 전투 준비는 의병의 주도하에

54)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逐倭船狀」·「陳倭情狀」.

55) 『난중잡록』 2, 癸巳 6월 15·18·19일.

56) 『隱峯全書』 권7, 記事, 「晉州敘事」.

이루어졌는데 충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병하였기 때문에 관의 통제에 따를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조·명군이 공성책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주성에 입성하였던 것이다.

(2) 제2차 진주성전투

2차 전투는 1593년 6월 21~29일까지 9일간 공방전이 이어졌으며 1차 전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성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진주성을 놓고 대치한 조선군과 일본군의 병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진주성전투 朝日 병력 비교>

공성군(일본) ⁵⁷⁾		수성군(조선) ⁵⁸⁾	
가토 기요마사	제1대 25,624명	김천일·황진·최경회 고종후·장윤 등	약 3천명
고니시 유키나가	제2대 26,182명		
우키타 히데이에	제3대 18,822명		
모리 히데모토	제4대 13,600명	본주군	약 2천여 명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제5대 8,744명		
합계 92,972명		합계 약 5~6천명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거의 점령한 일본군은 명군(明軍)의 파병으로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군량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혹한에 시달리던 일본군은 이 전투를 계기로 퇴각하여 경상도 연해지역에 주둔하였다. 이에 강화교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에서 철수한 군사들에게 진주성 공격을 명하였다. 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일본군은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편성하였으며 조선군은 정부 및 명군의 공성책으로 인해 병력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다만 의병 및 본주군 약 5·6천명과 수만의 백성들이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고성 의병장 최강·이달 등이 진주성을 돕기 위해 나섰으나 일본군의 공격에 중과부적으로 퇴각⁵⁹⁾하고 말았으며 이외에는 외원하는

57) 『일본전사조선역』(參謀本部, 大正13), 文書 제130호.

58) 김천일의 치계문(『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壬戌)에 의하면 6월 15일 경 진주성내의 군사는 3천명 정도였으나 전후 김륵의 상황보고(『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甲戌)에 의하면 사망한 군사 중 본주군 2천 4명이 있었고 이외에도 입성한 군사가 더 많다고 하였으므로 김천일이 치계문을 올린 이후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성한 군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5~6천명의 군사와 수만의 백성들이 수성하였다고 판단된다.

군사가 없었으니 고립무원의 악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수성을 자처한 상황에서 의병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유격전을 펼 수도 없었다.

1593년 9월 간의 치열했던 2차 진주성전투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월 21일 - 일본군 선봉대 기병 2백 명이 동북산에서 척후활동을 시작함.

22일 - 사시(巳時)(9~11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한 무리는 문경원 산 중턱, 또 한 무리는 향교 앞길에 진을 치면서 교전하여 적 30여 명 사살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교전하였고 적군은 동편의 해자를 흙으로 메워서 대로를 만들고 장제와 광제를 이용해 등성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철환과 화전을 발사하고 거목·대석을 투척하여 공격을 막았다.

23일 - 낮에 3번 공격했다 물러가고 밤에 4번 공격했다가 물러갔다.

24일 - 적군이 마현에 5~6천명을, 동편에 5~6백명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25일 - 적군이 동문 밖에 토산을 만들고 망루를 세워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였다. 이에 성 안에서도 황진의 주도하에 토산을 만들어 현지총통으로 공격하였다.

26일 - 적군이 ‘귀갑차’ 를 만들어 방패삼아 공격하였다. 또 동문 밖에 판옥을 짓고 화전으로 성내의 초옥을 불태우는 공격을 하였다. 목사 서예원이 두려워하자 김천일은 장운을 대신 가목사로 삼다. 큰 비로 인해 궁시가 모두 풀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적군이 항복을 권유했으나 수성군은 끝까지 사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준민이 전사하였다.

27일 - 적군이 동문과 서문 밖에 5개의 토산을 쌓고 누각을 만들어 성안을 굽어보며 총탄을 발사하여 3백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또 귀갑차를 만들어 수십 명이 밀고 와서 쇠송곳으로 성벽의 기단을 굴착, 성벽을 붕괴시키려 하였다. 이에 수성군이 불로 공격하여 귀갑차를 태웠다.

28일 - 적군이 밤새도록 성벽을 뚫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수성군이 결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황진이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황진이 전사하자 크게 동요하였다.

59) 『난중잡록』 2, 癸巳 6월 21일.

29일 - 최경회는 장운을 순성장으로 삼았으나 장운마저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다. 미시(未時)(오후1~3시)에 동문 쪽 성벽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일본군이 개미떼같이 올라왔다. 이종인이 군사들과 창검으로 적을 치니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일본군이 물러가서 다시 신북문에서 돌진해 오자 김천일 군사들이 무너져 달아나 모두 축석루에 모였다. 적군이 물러오자 서예원은 달아나고 모든 군사가 흩어졌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김천일을 부축하며 피하기를 권하였지만 “나는 마땅히 여기서 죽겠다” 하고 아들 상건과 고종후·최경회 등 수십인과 함께 북향재배하고 남강에 투신하였다. 이종인·이잠·강희열 등 십여 인은 장검을 휘두르면서 끝까지 싸우다 순절하였다. 이때 죽은 자가 약 6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패배를 거울삼아 철저히 준비하였다. 2차 전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주성 북쪽의 해자를 물꼬를 터서 마르게 한 다음 그 구덩이를 메워버렸다. 이로써 성의 더 많은 부분이 일본군의 공략에 노출되었다. 이 성벽의 붕괴는 진주성이 함락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차 전투를 통해 진주성이 천험의 요새라는 것을 경험한 일본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귀갑차(龜甲車)를 만들었다. 귀갑차와 이를 이용한 전술에 대한 묘사는 조선과 일본의 자료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귀갑차에 대한 묘사>

조선 측 자료(『난중잡록』)	일본 측 자료(『土佐物語』)
나무퀴를 만들어 소가죽으로 싸서 각기 그것을 지고 탄환과 화살을 방어하면서 와서 성을 헐었다. ... 나무퀴를 가지고 四輪車를 만들어 적 수십 명이 모두 쇠갑옷을 입고 퀴를 밀고 들어와서 쇠송곳으로 성을 뚫다. ⁶⁰⁾	귀갑을 크게 만들어 2~30명이라도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천 필의 소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다. 성 아래로 밀고 들어가 굴을 파는데 밤낮으로 6일을 파니 성루도 담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⁶¹⁾

60) 『난중잡록』 2, 癸巳 6월 29일.

61) 『土佐物語』(『國史叢書 土佐物語 二・四國軍記 全』, 國史研究會, 大正3)권17, 「晋州城歿落の事」, “龜の甲を大きに作り、二三十人も内にて働くやうに拵へ、其上を牛の生皮にて覆ひ、攻口の矢倉の下へ押

이외에도 여러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⁶²⁾ 『토좌물어(土佐物語)』에 의하면 가토 기요마사는 진주성을 공략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화의교섭을 결렬시키려 했는데 귀갑차는 이를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⁶³⁾ 성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은 우선 성 위에서의 공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귀갑차로 방어막을 구축한 뒤 쇠송곳으로 성을 뚫거나 담 밑을 굴착, 혹은 석단(石壇)의 각석(角石)을 당기는 작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 나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성군이 불로 공격하여 무찌르자 소가죽을 씌워 불에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의 귀갑차를 이용한 공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큰 비가 내렸다. 이 시기는 장마기간으로서 진주성이 함락된 6월 29일은 성 동문이 폭우로 무너졌는데⁶⁴⁾, 일본군이 굴착하거나 철추로 성을 뚫고 있던 상황에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오제 호안[소퇴보암(小瀬浦庵)]의 『태합기(太閤記)』에는 성벽 붕괴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귀갑차가 불에 타지 않도록 방비한 후 땅을 파고 동북동*東北東)쪽 석단의 각석을 무너뜨리자 성루[櫓]가 기울었다. 이에 수성군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더 진행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다음 날 귀갑차를 더 많이 동원하여 석단의 각석을 당기자 동시에 성루가 무너지고 말았다.⁶⁵⁾

김준민은 26일, 황진은 28일에 각각 전사하였으며, 29일은 최후의 전투일로서 무너진 성벽으로 일본군이 난입하면서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김천일과 그 아들 상건, 최경희·고종후 등은 축석루에서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 그 외에 이종인·이잠·강희열·장운 등은 적군과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성을 지키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도륙을 면치 못하였으니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진주성에서 대략 수만 명이 순절한 듯하다. 이에 대하여 후일 체찰사 이항복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때 의병 및 백성들 6만여 명이 순절하였다⁶⁶⁾고 하였으며, 『선조실록』에도 6만여 명이라 기록되었다.⁶⁷⁾ 한편, 일본 측 자료인 『태합기』와 『토좌물어』에는 일본군에 의해 참수된 수가 1만 5천 3백 명이며, 그 외에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강으로 빠져 죽은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여 도합 4만여 명이 참화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⁶⁸⁾ 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만 명이

寄せ、金掘を入れ、晝夜六日掘りしかば、櫓も扉も壊へず、崩れ落ちたりけり。”。

62) 『은봉전서』 권7, 記事, 「晋州敍事」;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戊辰 등이 있으며, 일본 측 자료인 『朝鮮征伐記』 卷第3, 「攻落晋州城事」; 『黒田記略』(九州大學 소장본), 「長政」條에는 ‘賴輻車’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63) 앞의 책(『土佐物語』), “加藤主計頭ば、殊に此城を攻落し、和議を破らんと思ひければ”

64) 『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6월 甲申.

65) 小瀬浦庵(吉田豊 譯), 『太閤記』三, 「晋州城落つ」(金相朝, 『晋州城戰鬪記-日本側文獻-集成』, 진주시 의회, 1998, 106~107쪽).

66) 『난중잡록』 2, 癸巳 6월 29일.

67) 『선조실록』 40권, 26년 7월 戊辰(16일).

살육 당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참수하기가 어려워지자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살려 주겠다’ 라고 유인하여 가둔 뒤에 불을 질러 몰살시키기도 하였다.⁶⁹⁾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참상을 겪었다.

제 5절 강화교섭기의 고성

강화교섭은 정확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1593년 1월 평양성전투 이후 본격적인 강화협상이 시작되었고, 1596년 강화협상이 결렬되자 일본군의 재침준비를 거쳐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즉, 1593~1597년 재침까지를 강화교섭 시기로 본다. 보통 강화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 시기를 ‘휴전’ 이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이시기 일본군의 동태를 상세히 살펴보면 휴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화협상은 조선을 제외하고 명나라와 일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 측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특히 남해안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화교섭 시기에는 일본군이 모두 철수하여 경상도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니, 부산·김해 및 가덕도·거제도 등지에 주둔하여 그 주변을 왕래하며 분탕하거나 접전하는 등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조선 수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국 군사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때로는 전투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고성지역의 경우 간혹 농사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자주 출몰하여 산막을 불태우고 노략질 하거나 살해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최강이 김덕령의 별장으로서 고성 경계지역에 복병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1596년 7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후 공초하는 과정에서 ‘김덕령은 호남에서 거병하고, 홍계남은 영남에서 거병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 김덕령이 잡혀갔고 며칠 후 막하에 있었던 최강 역시 붙잡혀 갔다.⁷⁰⁾ 최강은 석방되었으나 김덕령은 고문으로 죽고 말았으니 최강 부대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병의 사기가 크게 꺾였으며 은둔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강화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제2차 진주성전투 및 남해안의 전투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강화교섭은 명과 일본이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전장이 되어

68) 小瀬甫庵(吉田豊 譯), 『太閤記』三, 「晋州城落つ」(金相朝, 『晋州城戰鬪記-日本側文獻-集成』, 진주시의회, 1998, 107쪽), 『土佐物語』(권17, 「晋州城歿落の事」)에 기록된 내용은 사망자의 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太閤記』를 참조하여 편찬한 듯하다.

69) 『난중잡록』 2, 癸巳 6월 29일.

70) 『고대일록』 권2, 丙申 7월 庚寅(25일)·辛卯(26일)·8월 甲辰(9일).

버린 조선이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조선과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보자.

1) 강화교섭의 전개와 일본군의 2차 진주성공략

1592년 4월 부산으로 침략한 일본군은 개전 20일 만에 한성에 무혈입성하고 6월에는 평양성까지 점령하였다. 호남을 제외한 조선 전역이 불과 2~3개월 만에 일본군에 유린되었다. 그러나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을 괴롭혔으며, 조선수군의 활약으로 남해상으로 진격하려던 일본군을 와해시켰다. 이로써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일본군은 난관에 부딪혔고 명군의 참전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승리하였고 일본군은 성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기세 등등한 명군은 일본군을 추격하다 벽제관에서 일본군에 패함으로써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일본군의 입장에서조차 혹한(酷寒)·병량부족과 행주산성에서의 패배 등으로 괴패해진 군사로는 명나라 정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에 주둔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강화를 논의하게 되었다.

일본 측이 강화사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송응창은 명사(明使)로 사용재(謝用粹)와 서일관(徐一貫)을 보내 5월, 나고야[名護屋]에 도착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면하였다. 6월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명일본화평조건(大明日本和平條件)」⁷¹⁾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명과 일본의 화평조건으로 7개 조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一 . 명국의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처로 할 것
- 一 . 日明무역(勘合무역)을 부활시킬 것
- 一 . 일본과 명의 신하간에 영원토록 친선 맺기를 맹세할 것
- 一 . 조선의 4도를 할양할 것
- 一 .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 一 . 사로잡은 조선의 두 왕자(임해군·순화군)를 돌려 보낼 것
- 一 . 조선의 충신은 배반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할 것

이상과 같은 조항을 살펴보면 명과 조선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내용뿐이었다. 특히 명의

71) 「毛利家文書」(『秀吉と文祿・慶長の役』, 名護屋城博物館, 2007, 56쪽)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처로 삼는 다거나 조선의 4도를 할양할 것 등 처음부터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 이 화평조건을 제시한 이후 명 측에서 반응이 없자 풍신수길은 ‘대명(大明)이 말한 강화의 여러 절목에 대해 나는 원래부터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강화교섭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행동을 지속하였는데, 1593년 6월 2차 진주성전투가 바로 그것이었다. 2차 진주성전투의 성격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성, 그리고 강화교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처음 진주성 공격을 명할 때의 전황을 살펴보면 그 목적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니 그 배경을 살펴보자.

1593년 1월 고시나군이 평양성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시다 미츠나리, 오타니 요시츠쿠, 마시다 나가모리 등 조선 봉행(奉行)은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도요토미에게 1월 23일보고⁷²⁾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서울 이북에 주둔한 군사들로서 평양의 고니시 유키나가, 황해도 백천(白川)의 구로다 나가마사, 경기도 개성의 고마야카와 다카카게 등 임진강 이북에 주둔한 군대가 서울로 철퇴한 것은 임진강의 빙판이 녹아서 서울로부터 무기 및 병량을 수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과 부산 사이에 연결된 몇 개의 번성(番城)이 2~3만 정도의 조선군에 포위되어 서로 연락할 수 없다. 게다가 부산포 주변에 조선수군이 출몰하니 그 주변 축성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병량이 부족하다. 작년에는 조선 농민을 인질로 병량미를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병량미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서울에 비축해 둔 병량미가 1만 4천 석으로 2개월 분 뿐이며, 번성도 약 2개월 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위해 충청도와 전라도의 평정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도요토미는 평양성 패전, 조선 의병의 활약으로 번성 간의 보급로 차단, 병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곧바로 구로다 요시타카 [黒田孝高]·아사노 나가마사 [淺野長政]를 조선으로 파견하고 병력 재편을 지시하였다. 즉, 가토 기요마사에게 임진강을 확보하게 하고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부산-서울 간의 적당한 곳에 진을 치게 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여러 장수들에게 병량을 지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개성까지 진격하여 서울과 개성 사이에 있는 조·명군을 협격하도록 하였다. 특히

72)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133-134쪽.

우키타 히데이에를 총대장으로 삼아 병력을 일으켜 진주성을 공략한 다음 전라도·경상도를 평정하도록 지시하였다.⁷³⁾ 평양에서 패배하였지만 군사 및 병량 부족을 보충하여 다시 북상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2월 27일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진주성 공격을 재차 명하였다.⁷⁴⁾

진주성을 공략한 다음 전라도 점령을 지시한 것은 병량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앞서 조선봉행 등이 보고할 때 충청도·전라도 평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던 것도 병량 문제였다.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기만 하면 병량의 현지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라도 점령에 목표를 두고 명령을 내렸다.

한성에 주둔한 일본군은 병량부족, 조선군의 공격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자 17명의 장수는 도요토미에게 철수를 건의하게 되었고 이에 도요토미는 ‘군량도 없고 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한성과 부산 중간에서 전라도 방면을 견제할 수 있는 요지를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하라’는 것으로 전략적 후퇴를 지시하였다.⁷⁵⁾ 도요토미는 한성에서 철수하도록 하면서도 전라도 공략에 대한 지시는 멈추지 않았다. 4~5월 경, 전라도로 진격하기 위해 우선 진주성 점령을 명하였다.

4월 12일

- 부산포·김해·웅천포·창원에서 진주성을 공격할 진까지 군사들의 식량보급에 지체됨이 없도록 연락을 확실히 할 것.
- 진주성 공격에서는 말 사료를 준비하는 동안 각자 의논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통치를 위한 성으로 만들 것. 그러나 그 성을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전라도를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혹은 앞에서 말한 성들을 장악한 뒤에 말 사료도 준비하고 난 다음 공격해도 좋을 것이다.⁷⁶⁾

5월 1일

- 목사성(진주성) 공략은 흙주머니와 죽창을 만들도록 명하고,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투에 임할 것이며 한 명도 빠짐없이 토벌할 것.
- 그렇게 한 후에 전라도로 출진해서 승리하도록 할 것.
- 전라도로 출진해서 완전히 토벌한 후, 앞에서 말한 성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군사의 다

73) 위의 책, 134~135쪽.

74) 『일본전사 조선역』(參謀本部, 昭和53) 文書 제96호, 98~100쪽.

75) 박재광,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軍史』 44, 군사편찬연구소, 2001)

76) 『일본전사 조선역』(參謀本部, 昭和53) 文書 제110호, 120~123쪽.

소에 따라 성의 크기를 결정하고 장소도 검토하여 각자 소유할 것.⁷⁷⁾

전라도 공략을 위해 우선 진주성 공격을 명하고 있으니 진주성 공격부대에 병량을 확실히 보급하기 위해 부산·김해·웅천·창원 등 연해지역으로부터 진주까지의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6월 말, 진주성 공략부대는 약 9만 2천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에게 병량 등을 보급하는 병참부대의 활동까지 감안하면 조선에 주둔한 거의 모든 일본군이 진주성 공략을 위한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주성을 함락한 후에는 전라도를 토벌한 후 각자 경상도 연해지역에 통치를 위한 성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전 지시를 살펴보면 한성에서 철수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병력이 전라도를 향하게 되었다. 전라도를 점령하여 그곳을 발판으로 다시 북상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당초 명을 정벌하겠다는 전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정된 것뿐이었다. 통치를 위한 성을 구축하게 한 것도 서서히 점령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수군의 상황과 일본군의 동태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일본군이 한성까지 후퇴하였고 전세가 역전되는 듯하자 조선 측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려 하였다. 조정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명하여 적들이 서울에서도 곧 도망하여 돌아갈 것이므로 수군을 거느리고 합세하여 돌아가는 적을 남김없이 무찌르도록 하였다. 명군이 남하하면 그에 쫓긴 일본군이 남쪽으로 후퇴하여 결국 부산지역에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순신은 원군과 이역기의 수군과 합세하여 웅천 앞바다에 이르렀다. 웅천을 공략하고 양산과 김해의 길을 막아 후방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부산으로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웅천의 적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나오지 않으므로 수륙으로 합공하기 위해 경상우도순찰사 김성일에게 공문을 보내 육상에서 웅천을 공격하도록 하였다.⁷⁸⁾ 즉, 육상에서 웅천을 공격하면 적들이 바다로 달아날 것이므로 그때 수군을 이끌고 섬멸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조선 수군은 육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웅천 공략을 지속하였다.

2월 18일 - 좌별도장 이설과 좌돌격구선장 이연량 등이 적선 3척에 타고 있는 왜적 1백여 명 사살, 적장 피령전에 맞고 쓰러짐

77) 위의 책, 文書 제120호, 133~135쪽.

78)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 2월 22일 - 3도에서 각각 경완선을 내어 15척으로 적선이 정박한 곳으로 돌격
 - 의승병·사부 등을 태운 전선 10여 척으로 안골포와 제포에 상륙시켜 협공, 적군 무수히 살상
 - 사도첨사 김완, 우별도장 이기남, 판관 김득룡 등이 적진에서 조선인 포로 5명을 구출
 - 전투과정에서 조선의 통선 1척 전복
- 2월 28일·3월 6일 - 적진에 나아가 포환, 시석, 비격진천뢰 등 발사하여 무수히 살상
- 3월 22일- 전라좌도 경상우도의 복병선장들이 협력하여 왜인 2명 생포하여 문초함

수군이 거제도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웅천의 적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으나 수군만으로는 육지의 적을 섬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육군의 지원이 절실하였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 군사가 남하하여 적들을 해안으로 몰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해상에서 적의 귀로를 차단하여 부산·동래의 적을 무찌를 것을 여러 차례 명을 내렸다.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면 유부총병이 연락병인 당보아(塘報兒)·왕경(王景)·이요(李堯) 등을 보내어 6월 선산에서 두 번이나 진중에 이르러 수군의 수를 알고 간 후로는 의령·진주 등지의 길이 막혀 통행되지 못했다⁷⁹⁾고 한다. 이를 보면, 명군과 조선수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려 했던 정황은 있었으나 명군은 오히려 일본과 강화교섭을 진행하면서 전투를 멈추고 관망하기만 하였다.

명군과 조선수군의 연합작전이 중단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일본의 고니시는 관백(關白)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진주성을 공격해야 하니 성을 비워 그 화를 피하라는 이른바 공성책을 제시하였다. 성을 비워주면 진주성만 점령했다는 명분만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으며 명군 측에서는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에 명군이 철수하자 조선의 관군인 이빈·권율·선거이 등도 모두 퇴각하였다.⁸⁰⁾ 이로 인해 일본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9만 2천여 명이 진주성까지 당도하였으며 김천일 등 의병 3천여 명과 백성 수만 명이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다. 9일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의병 및 백성들이 전사하는 참화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육상군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 지역을 공략할 수 없었다. 부산·동래를 공략하려면 우선 웅천·김해·양산의 적을 축출하

79)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逐倭船狀」.

80) 『난중잡록』 2, 癸巳 6월 15·18·19일.

여 후환을 없애야 했지만 수군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선 수군은 견내량에 진을 치고 일본군의 동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서 밝힌 풍신수길의 진주성공략 지시 내용 중에 부산에서 진주까지 병량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라도를 토벌할 것, 그리고 통치를 위한 성을 구축할 것 등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이순신의 장계⁸¹⁾에 잘 나타나 있다.

6월 15일 창원에 있던 적이 함안으로 돌입한 뒤 16일에 8백여 척의 적선이 부산과 김해로부터 웅천·제포·안골포 등지로 옮겨졌다. 그 외에도 무수한 적선들이 수륙으로 왕래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웅천과 제포에 대었던 적선들이 모두 거제땅 영등포·송진포·하청·가리(加里) 등지로 옮겨 바다에 가득하여 부산에서부터 거제까지 후원선이 끊기지 않을 정도였다.

일본군이 함안에 이르자 함안에 있던 조선의 여러 장수들은 의령 등지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로써 일본군은 부산으로부터 진주까지 방해 받지 않는 보급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 보급선상에 있는 여러 지역에 통치를 위한 성, 즉 왜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이순신은 ‘부산으로부터 웅천에 이르기까지 100여 리에 서로 바라보고 보루를 쌓고 성채를 엮어서 벌이나 개미떼같이 진치고 있으니 참으로 통분하다’ 고 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동태에 대하여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온 사람들과 정탐을 하고 온 군관들에 의해 자세히 보고되었다. 특히, 훈련봉사 제만춘이 1592년 9월에 포로가 되어 일본 나고야성까지 끌려갔는데 글재주가 있어서 풍신수길의 서사(書寫)인 반개(半介)와 함께 지내며 문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가 6개월 만에 탈출함으로써 나고야성에서 보고 들은 여러 사정들을 보고하였는데 풍신수길이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순신이 포로 및 군관들에게 보고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기장·울산·부산·동래·좌수영·양산·김해 및 웅천에 세 곳, 거제에 세 곳, 당포의 세 곳에 성을 쌓고 집을 지은 뒤에 반수는 성을 지키고 반수는 (본국으로)들어왔다가 성을 지키는 왜군들은 명년 3월에 교대병을 내보낸 뒤에 들어온다.⁸²⁾

위와 같이 울산에서부터 부산과 거제에 이르는 여러 곳에 성을 쌓고 집을 짓도록 한 풍신수길의 명령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명을 실행하고 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되고 있었으니 이순신에게 보고된 내용⁸³⁾은 아래와 같다.

81)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陳倭情狀」.

82)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 웅천성 - 옹포의 서쪽 산봉우리에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 안골포 - 성 내외에 집을 짓고, 원포 대발치(大發峙)까지 집을 지음, 서쪽 산봉우리에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 체포 - 북쪽 산에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사화랑 망봉(望峰) 밑 서쪽 중봉에 성을 쌓음
- 영등포 - 관혁기(貫革基)에서 죽전포에 이르기까지 2백여 채의 집을 짓고 북봉에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 김 해 - 죽도에 집을 지음
- 장문포 -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 송진포 - 토성을 쌓고 집을 지음

위의 정황은 적진에 포로되었다가 탈출한 조선인 및 군관들이 구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이며 각 포구마다 수십에서 수백 척의 대·중선들이 정박해 있으면서 본국으로부터 군량과 의복을 연속 실어온다고 하였다. 이 모든 정황이 장기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목표가 명나라로 진격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었다. 1593년에 축성된 왜성은 약 14곳으로서 울산으로부터 웅천·거제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고성·진해까지 침범하며 약탈하였다.

3) 甲午年 당항포 해전

당항포 해전은 임진년 6월 5일에 있었으며, 또 한 번은 갑오년(1594) 3월 4~5일에 있었다. 당항포는 고성의 포구인데 고성은 임진왜란 기간 내내 적군에 의해 황폐해진 곳 가운데 하나이다. 육로와 해로 양면으로 침탈당했으니 특히, 강화교섭기에는 해로를 통한 일본군의 약탈·방화가 극심했던 곳이다. 심지어 고성현령 조응도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굶주림이 심한 나머지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⁸⁴⁾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서 견내량을 중심으로 적의 동향을 주시하였다. 1594년 2월 7일 적선 50여 척이 고성 춘원포(春院浦)에, 8일에는 적선 50여 척이 고성 소소포(召所浦) 드나든다는 보고가 있었다.⁸⁵⁾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세를 정탐하였다. 3월 3일 고성 벽방망장(碧方望將) 제한국(諸漢國)이 급히 보고하기를 ‘왜의 대선

83)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陳倭情狀」.

84) 『난중일기』 甲午 2월 9일.

85) 『난중일기』 甲午 2월 7·8일.

10척·중선 14척·소선 7척이 영등포에서 나오다가 21척은 고성땅 당항포, 7척은 진해땅 오리량, 3척은 저도로 모두 향해갔습니다’ 하였다. 이에 즉시 원균·이억기에 전령하고 순변사 이빈에게 하륙한 왜적을 무찌르도록 통고하였으니 수륙합공을 위한 것이었다.

4일 새벽에 전선 20여 척을 견내량에 머물러 사태에 대비케 하고 3도의 정예선을 가려 31명의 장수를 선발하고 조방장 어영담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전투부대를 정비한 후 적들이 출몰한 당항포 및 오리량 등으로 보냈다. 그런 후 이순신은 이억기·원균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영등포와 장문포 앞바다의 증도(甌島) 해상에서 학익진을 펴 바다를 가로질러 앞으로는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뒤로는 적의 퇴로를 막았다. 그러자 왜선 10척이 진해 선창으로부터 나오므로 어영담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일시에 돌진하여 좌우로 협공하였다. 그 결과 진해 읍전포(邑前浦)에서 6척, 고성 어선포(於善浦)에서 2척, 진해 시구 질포(柴仇叱浦) 2척을 분멸하였다. 적군들이 배를 버리고 물으로 달아나 빈 배만 태웠다. 그리고 녹도만호 송여중은 왜선에 포로되었던 고성 정병(正兵) 심거원(沈距元), 진해관비 공금(孔今), 함안 양가집 딸 남월(南月) 등을 구출하였다. 당항포에 정박한 적들은 대·중·소선 21척이었다. 그들은 사세가 불리함을 알고 배에서 하륙하여 결진하였고, 이순신은 순변사 이빈에게 육군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어영담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보냈으나 조수가 나가고 날이 저물어 당항포를 가로질러 막고 밤을 지냈다.

5일 이순신은 이억기와 함께 결진하여 당항포 밖으로 들어오는 적에 대비하고 어영담은 군사를 거느리고 포구 안으로 들어갔으나 적이 모두 배를 버리고 도망해버려서 적선 21척을 분멸하였다.⁸⁶⁾

전투가 끝난 다음 날인 6일에는 일본군 소선 1척에 왜인 8명과 명나라 사람 2명이 타고 고성 인근에 있는 것을 남해현령 기효근이 만났고, 이를 이순신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명나라 사람이 가져온 패문(牌文)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금토왜적사패문(禁討倭賊事牌文) (왜적을 무찌르지 말라)」으로 명나라 장수 담종인이 써준 것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온 명나라 병사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길,

작년, 11월에 도사부 譚老爺[담종인] 등이 웅천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머물고 있으면서 명나라 조정에서 화친을 허락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왜인들이 귀국 수군의 위세를 겁내어 상심낙담하여 도사 노야 앞에서 갖가지로 애걸함에 이 패문을 만들어 보내게 된 것입니다.⁸⁷⁾

86) 『이충무공전서』 권4, 狀啓三, 「唐項浦破倭兵狀」.

87) 『이충무공전서』 권4, 狀啓三, 「陳倭情狀」.

강화를 진행중이라는 명분으로 일본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 수군의 공격을 견제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즉시 담중인에 답서를 보내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다. 강화교섭은 조선을 제외한 명과 일본이 진행하였으므로 조선의 입지가 위축되어있었다. 명군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 측의 군사행동을 만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인근지역에 대한 약탈·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4) 기문포해전

정유년 고성의 상황은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수개월 전인 거제 기문포해전으로부터 전란이 시작되었으니 이 해전을 살펴보자. 강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본군의 출몰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분쟁이 잦았으며 정유년에 와서는 침예하게 대립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1597년 3월 8일, 왜선 3척이 거제 기문포에 정박하고 상륙하였다는 소식에 통제사 원균이 전라우수사 이억기, 안골포만호 우수, 거제현령 안위, 고성현령 조응도 등의 군선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9일 아침 기문포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이 배를 정박해놓고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항왜 남녀문(南汝文)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여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돛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총통을 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응도가 지휘하는 고성의 전선이 가장 앞서 나갔는데 그는 판옥선에 사부(射夫)·격군(格軍) 등 1백 40여 명을 거느리고 출격하였다. 3월 9일 조라포(助羅浦) 경계의 고다포(古多浦)에서 접전⁸⁸⁾하였는데 적군 20여 명이 올라와 교전 중 대부분의 군사가 바다로 뛰어내려 다른 전선으로 구제되기도 하였으나 조응도가 전사하고 사부·격군 등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의 판옥선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임치첨사 홍견(洪堅), 홍덕현감 이용제(李容濟)가 적들이 타고있는 판옥선에 불을 질러 모두 소탕하고 배에서 뛰어내린 적들을 참수하였다.⁸⁹⁾

이 전투에서 통제사 원균의 지휘로 적선 3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베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측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벌목하는 군사를 해하지 않기로 약조한 것을 어겼다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때 풍무수(豊茂守)의 사졸 32명, 고시니 유키나가의 사졸 15명이 모두 참살 당하여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도합 47명으로서 원균이 취한 수급 47급과도 일치한다. 특히, 풍무수가 김응서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

88)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戊申(18일).

89)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甲寅(24일).

대의 왜 32명이 증선 한 척을 타고 나무를 벨 일로 거제 옥포 지경에 가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조선수군이 유인하여 은밀히 다 죽였으므로”⁹⁰⁾라고 하였다. 또한 조라포 지경의 고다포에서 접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문포해전은 옥포와 조라포(고다포)의 인근 해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제도의 동쪽 해상에서 있었다.

한편, 이 해전과 관련된 인물로서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운정(雲汀) 박애상(朴愛祥)(1554~1597)을 들 수 있다. 1854년에 창건한 신도동사(新道洞祠)에 조응도와 박애상의 위패를 나란히 모셨는데⁹¹⁾ 이는 그가 조응도와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기문포해전에서 조응도가 3월 9일에 전사하였는데, 박애상의 「묘갈문(墓碣文)」⁹²⁾에는 박애상이 3월 29일에 곽도(橘島) 해상에서 조응도와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시신을 찾지 못하여 옷과 신발을 거두어 초혼장을 지냈다. 특히, 이 묘갈문은 조응도의 방손(傍孫) 조용원(趙鏞遠)이 1855년에 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정유년 3월 29일 왜적과 곽도 해상에서 싸우다가 조공(조응도)과 동시에 순절하였다.”⁹³⁾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조응도의 후손들조차 조응도와 박애상의 전사한 날을 3월 29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조응도가 전사한 후 3월 17일 원균의 아우인 원전(元典)이 고성현령에 제수되었으니⁹⁴⁾ 3월 29일에 전사했다는 묘갈문의 기록은 착오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함께 전사했음에도 『선조실록』과 「묘갈문」에 전사한 날이 일치하지 않은 연유를 보자면, 『선조실록』은 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서술하였고 「묘갈문」은 수군의 전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중에 박애상과 조응도 등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기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박애상의 경우는 시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날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후대(1855년)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전사한 곳과 관련하여 기문포가 거제도의 어느 곳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옥포와 조라포의 인근 해역이었는데 박애상이 조응도와 함께 곽도 해상에서 전사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곽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곽도라는 명칭은 「거제부지도」(1872)⁹⁵⁾에 표기된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거제도의 서쪽 바다, 즉 사곡리(沙谷里)·장평리(長坪里)의 북쪽 해안에 있어서 기문포해전의 위치와는 반대쪽이라

90)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乙卯(25일).

91) 『鐵城誌』 권2, 祠院, 新道洞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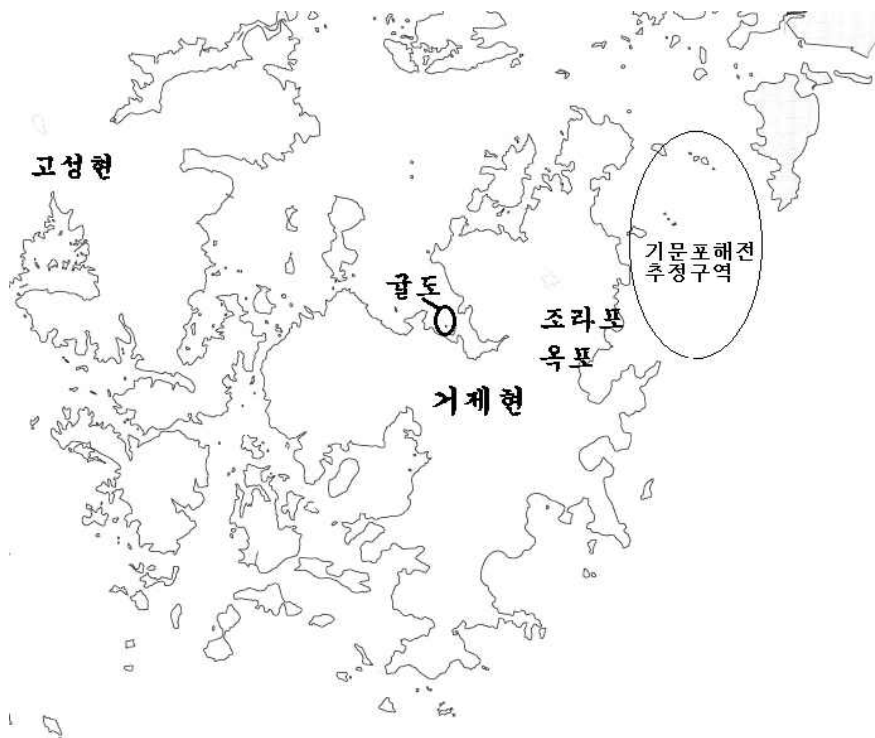
92) 『竹山林氏忠質公波譜-固城·鐵城-』甲卷(2000), 墓碣文, 「雲汀公諱愛祥墓碣文」(1855).

93) 위와 같음, “...丁酉三月二十九日與倭戰於橘島之海與趙公同時殉節...”.

94) 『竹溪日記』 권4, 丁酉萬曆三十年 三月 丁未(17일).

95) 『巨濟府地圖』(1872년 지방지도), 奎10512 v.2-10, 여타 각종 고지도에는 ‘柚子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도 유자섬이라고 한다.

는 점이 의문이다. 옥포와 조라포 인근에서 교전중 적들이 북쪽으로 달아나 추격하긴 했지만 서쪽으로 진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제 6절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정유년(1597) 일본군의 재침은 전라도 공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임진란 때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했던 정책과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전라도는 유일하게 적침으로부터 보전되었던 곳으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이에 일본은 강화교섭 진행과정에서 조선의 남부 4道 할양을 요구하였으며, 관철되지 않자 정유년에 다시 침공하여 실력으로 차지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4만여 대군을 정비하여 해상에서는 7월 중순 칠천량해전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격파하여 남해안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육로로 진격하여 8월에 남원성을 함락시킨 뒤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경상우도의 경우는 고성을 비롯해 김해·창원·함안·진주·하동 등 남부지역에 모두 적들이 웅거하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⁹⁶⁾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적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라도에 침략하기 전에 경상도 연해지역은 이미 적군의 소굴이 되어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 서쪽으로는 전라도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았다. 일본군이 이처럼 해안지역에 성을 쌓은 이유는 본토와의 연락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해로를 통한 군수조달 및 비상시 본국으로 철수하기 좋은 위치였다. 즉,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였다.

고성은 일본군이 점거한 후 고성읍성의 일부를 개수하여 왜성을 쌓았다. 고성왜성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부장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가쓰라 모토쓰나[桂元綱]에 의해 축성되었다. 즉, 1597년 10월 23일에 명령서를 내려 고성읍성 남부 구릉에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성 이후 수성군은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다치마나 무네토라[立花統虎], 타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가 맡았다.⁹⁷⁾ 고성의 주둔군에게 1598년 3월, 군량 2천석이 일본 본토로부터 지급되었으며⁹⁸⁾ 병력은 1598년 9월 경 약 6~7천 명이었다. 인근 지역인 진주에 약 400명, 사천에 7~8천 명 가량 주둔하였으며 남원·창원·김해·거제 등지와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고 있었다.⁹⁹⁾

이후 사천성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군이 조명연합군을 물리치고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였는데 이때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다치마나 무네토라 등도 함께 구원군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노량 해역에서 11월 19일, 조명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치르고 부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7년간의 전란이 종식되었다.

고성왜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가 1916년 조선사적유물조사¹⁰⁰⁾를 실시하면서이고, 반 미치오[伴三千雄]가 1922년 9월에 성지(城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현재 고성왜성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왜성의 흔적을 확인하였고¹⁰¹⁾, 2006년에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고성읍성을 발굴하였는데¹⁰²⁾ 읍

96) 『선조실록』 95권, 30년 12월 乙丑(9일).

97)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44쪽.

98)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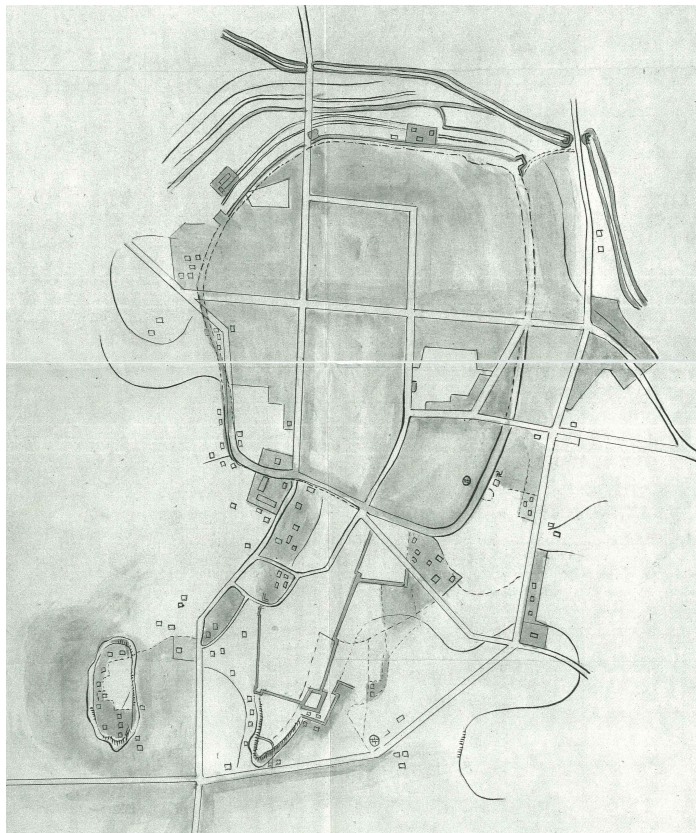
99) 『선조실록』 권104, 31년 9월 庚戌(28일)

100) 黑板勝美, 「朝鮮史蹟遺物調査報告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昭和四九年) 52頁.

101)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성의 일부만 해당될 뿐, 인접한 왜성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 미치오가 고성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군리(郡吏)의 안내를 받아 성지(城址)에 이르자 한눈에 일본식으로 축성된 것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혼마루[本丸]가 있고 그 서쪽에는 혼마루보다 조금 낮은 커다란 니노마루[二之丸]터를 확인하였다. 혼마루의 동부에서부터 남부로 꺾어 둘러진 성곽[帶郭]이 있으며 그 西南쪽 즉, 니노마루의 남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산노마루[三之丸]이다. 성곽과 산노마루의 외면은 구릉이 끝나는 곳이 절벽이다. 고성왜성은 기존하는 조선성의 남부에 이어져 있고 3면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탄한 논과 접해 있다. 북쪽은 좁고 길게 되어있으며 조선성의 위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올챙이 모양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어서 성터에서부터 바라보면 보일 정도라고 한다.¹⁰³⁾



102)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103) 伴三千雄, 「再び南鮮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歴史地理』46卷3号, 大正14年 9月).



▲ 고성왜성(유리건판), 일제강점기
 ◀ 固城城圖, 일제강점기
 (九州大學九州文化施設所 소장)

제 7절 충절의 현장과 추승

조선의 유교문화는 충·효로 발현된다. 임란의병의 경우도 그 동력은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난극복에 참여했던, 즉 ‘충절’로 대변되는 인물들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길이 숭양하는 추모사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추승활동의 과정을 보면, 도내 혹은 향리의 유림들이 연명한 상서를 올려 국가로부터 정려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원·사우를 건립하여 제향함으로써 그 인물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신을 계승하였다. 여기에 제향된 인물의 가문 또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으므로 수백여 년이 흐른 후까지도 이러한 추승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고성지역의 후손들은 임란 극복의 주체였던 선조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자 하였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자.

1) 도산서원(道山書院)



도산서원, 구만면 화림리 127

천계 3년(1623) 최균·최강 형제가 처음 의병을 일으켰던 소대(蘇臺)에 사당을 지어 봉향하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 정조 신축년(1781)에 도내의 선비들이 논의하여 오도산(吾道山) 아래(현재 구만면 화림리)에 사당을 옮겨 ‘도산서원’이라 하고, 소호(蘇湖) 최균, 소계(蘇溪) 최강, 운포(雲圃) 이달의 신위를 나란히 모셨다. 1837년 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흥학재(興學齋)를 세웠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1869년 철폐되었다.¹⁰⁴⁾ 한편 이달의 신위는 1842년 유촌서원에 배향하였다.

경상도 진사 김경락(金景洛)이 최균·최강의 임란 당시의 공로를 들어 정려를 내려줄 것을 상소하자 이에 예조에서 신묘년(1891) 10월 29일 회답하였고, 그 후손들에게 호세(戶稅)를 돌려주고 잡역을 감하여 주는 내용을 입안하기도 하였다.¹⁰⁵⁾ 이로 인해 1913년 옛터를 닦아 다시 서원을 건립하였다.

2) 유촌서원(柳村書院)

104) 『쌍충실기』 권4, 「祠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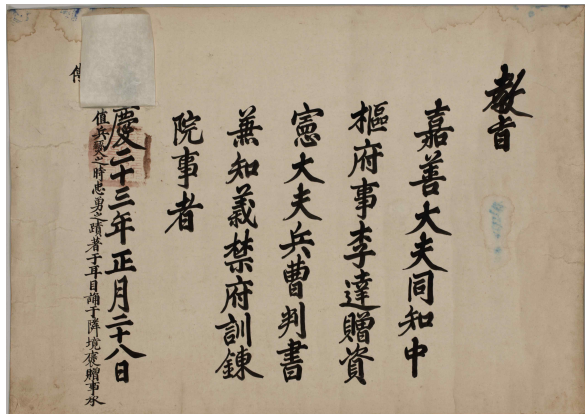
105) 『쌍충실기』 권4, 「請旌 上言後禮曹回 啓」·「禮曹立案」.

유촌서원은 고성현의 북쪽 10리의 양덕리(陽德里)에 1709년(숙종 35)에 세우고 휴옹(休翁) 심광세(沈光世 1577~1624)를 봉향하였다. 그리고 1842년(헌종 8) 운포(雲圃) 이달(李達)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심광세는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덕현(德顯), 호는 휴옹(休翁)이다. 160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1613년(광해군 5) 문학을 거쳐 교리로 있을 때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무고를 입고 고성(固城)으로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다시 교리에 임명되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성묘하러 고향에 갔다가 피난한 왕의 행재소로 가던 중 부여에서 병으로 죽었다.

이달은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명숙(明叔)이다. 일찍이 문무를 겸장한 인물로서 최균·강형제 등과 함께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였다. 고성, 창원, 진해, 웅천, 사천, 진주 등지에서 토적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1차 진주성전투에 부원하였으며 두골평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선무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이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1818년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훈원사에 증직되었다.

이달의 충절과 공적은 지방 유림들에 의해서 현창되었다. 고성 유림들 76명이 연명하여 지방수령에게 올리기도 하고, 경상우도 내의 유림들 170~180여 명이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올림으로써 정려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달의 공로가 고성을 비롯한 경상도지역에서 공론화 될 정도의 뚜렷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달 교지(1818년)

3) 운곡서원(雲谷書院) · 제씨쌍충사적비(諸氏雙忠事蹟碑)

운곡서원은 철종 병진(1856)에 세워 동고(東阜) 제철손, 제말, 제홍록 등 칠원제씨(漆原諸氏) 인물들을 봉향하였다.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00여 년이 지난 1989년, 일본에 거주하던 후손 제학봉(諸鶴峯)에 의해 복설되었다.

제말(諸沫, 1552~1593)은 자는 이원(而源), 시호는 충의(忠毅), 아버지는 필강(弼岡), 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제홍록(諸弘錄, 1558~1597) 자는 경행(景行), 호는 고봉(高峰), 아버지는 참관 호(灑)이다.



운곡서원, 대가면 척정리 1467

제말과 제홍록은 숙질관계로서 임란 당시 함께 활동하였으니, 의병을 모아 응천·김해·의령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592년 8월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로 성주성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임란초 성주성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가 그의 부장 가쓰라 모토쓰나[桂元綱]에게 수비를 맡기고 자신은 개령에 주둔하여 성주성과 연락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8월 21일 조선 측이 공격하였으나 모리 데루모토가 보낸 구원병의 기습으로 실패하였고 9월 11일 재차 공격하였으나 역시 구원병이 당도하였으며 성내에서도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앞뒤로 공격받아 패주하고 말았다. 이후 임계영·최경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의병이 부원하면서 전세가 바뀌었고 그해 12월 성주의 적군을 공격하여 대부분 섬멸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적세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1593년 1월, 성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성주성을 수복하게 되었으나 당시 성주목사였던 제말은 얼마 후 전사하였다. 제말이 전사한 시기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1593년 4월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의하면 남구만이 어사로서 성주를 순시할 때 선생안(先生案)을 열람하였는데, 제말이 만력(萬曆) 계사(癸巳)(1593) 정월 모일에 부임하여 4월 모일에 파직하여 돌아갔다는 기록을 보았다고 한다.¹⁰⁶⁾ 이는 1593년 1월, 성주성을 탈환하자 성주목사인 제말이 성주성에 입성하여 4월까지 사무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말은 1593년 4

106) 『연암집』 권14, 별집, 「熱河日記」, 避暑錄.

월까지의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홍록은 1597년 정유재란시 진주성에서 전사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조가 집권하면서 임진왜란 공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제말·제홍록에 대한 공적은 1792년 경상도 관찰사 정대용(鄭大容)이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 당시 제말의 묘소는 진해 동면 하귀산(河龜山)에 있었는데 외손인 김동해(金東海)·김동수(金東秀)가 지키고 있었으며, 제홍록의 묘소는 고성의 대둔면 척곡산(尺谷山)에 있었는데 방손인 제경빈(諸敬賓)·제국추(諸國樞)가 지키고 있었다. 제말과 제홍록의 직손을 찾아보았으나 당시에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의 공적을 조사한 결과, 제말은 성주에서 순절하였고 제홍록은 진양에서 순절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성주와 진주에 각각 비석을 하나씩 세우기로 하고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던 병조판서 이병모(李秉模)로 하여금 비문을 쓰도록 명하였다.¹⁰⁷⁾

이런 연유로 제씨쌍충사적비 두 기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현재 경북 성주군 경산리, 경남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내의 축석루 옆에 각각 1기가 있다. 1792년 이조판서 서유린(徐有隣)이 글을 짓고, 병조판서 이병모가 글씨를 쓰고, 호조참판 조윤형(曹允亨)이 전서(篆書)하였다.



제씨쌍충사적비, 경북 성주군 경산리

107) 『정조실록』 권35, 16년(1792) 9월 丙辰(20일).

4) 신도동사(新道洞祠) · 망사재(望思齋)



망사재, 삼산면 관곡리 337

신도동사는 철종 갑인년(1854), 고을 남쪽 2리 지점에 건립하였다. 임란시 전사한 고성 현령 조응도(趙凝道, 1555~1597)와 의병장 박애상(朴愛祥, 1554~1597)의 신위를 봉향하였다. 현재 폐사되었다. 조응도와 박애상은 임란시 함께 활동하였는데 1597년 3월, 거제도 기문포 해상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망사재는 1908년 고을 서남쪽 10리 지점인 판운(板雲)(현재 삼산면 관곡리)에 건립하였다. 의병장 박애상이 굴도 해상에서 전사하자 부인 함중어씨가 바다로 투신하여 그 뒤를 따랐다. 박애상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옷과 신발만 거두어 천마봉에 초혼장(招魂葬)을 하고 부인은 시신을 거두어 그 아래에 부장(附葬)하였다. 이 봉우리를 자손들은 침망(瞻望)하고 사람들은 사모(思慕)한다고 하여 망사정(望思亭)이라 하였다. 여기에 재를 짓고 이름하여 ‘망사재’라 하였다.

그 후 지역 유림들이 박공의 업적을 기리고자 뜻을 모아 묘비(墓碑)를 세우기로 하였고, 1916년 「유명조선의사운정박공의리장비(有明朝鮮義士雲汀朴公衣履藏碑)」(기우만 撰)를 세웠다. 이 비문 내용을 보면, 박애상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희도(希道)이다. 그의 선조들 가운데 공신들이 있었으니 죽주백(竹州伯) 기오(奇悟)는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서 시호는 충정(忠貞)이며, 술(述)은 고려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이르렀다. 판포 어득강에게 수학하여 학문적 소양을 갖췄고, 임진왜란 당시 고성현령 조응도와 함께 활동하다 정유년 굴도(橘島) 해상에서 전사하였음을 기록하였다.

5) 호암사(虎巖祠)



운정박공의리장비, 삼산면 판곡리 337

동해면 장좌리에 있다. 천만리(千萬里)의 본관은 영양(潁陽), 자는 원지(遠之), 호는 사암(思庵),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파병된 명나라 장수로서 아들 상(祥)·희(禧)와 함께 왔으며, 종전 후 조선에 귀화하였다. 정묘·병자호란 당시에 주손(胄孫) 태지(泰智)가 서울에서 경주로 이거하였으며 다시 고성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들이 수 백호에 이르게 되었다. 숙종대에 대보단(大報壇)을 쌓고 제사를 지내다가 신묘년(1831)에 국가로부터 부조위(不祧位)의 명이 내려져 사우를 창건하였다. 이는 천장군의 공적으로 인해 영구히 신위를 봉향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 후 서원철

폐령으로 1868년에 폐쇄되었다가 계묘년(1903)에 중건하였다. 1910년 7월 ‘충장(忠壯)’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니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호암사 전경, 동해면 장좌리, 문화재자료 제39호

慮國忘家曰忠나라 걱정에 집안을 잊는 것을 충이라 하고
勝敵克亂曰壯적을 이겨 국란을 극복한 것을 壯이라 한다.



탄신제향(음력 8월 1일)



上 화산군묘우중건상량문, 이문화 찬(1903)
下 호암서원기, 최병돈 찬(1915)

『虎岳書院記』에 주요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만리 장군의 후손인 익학군(翼鶴君) 관수(盥手)가 최병돈(崔秉敦)에게 청탁하여 乙卯年(1915)에 찬하였다.

6) 이로재(履露齋)



이로재, 회화면 삼덕리 치명마을



상량문(上樑文), 박기양 찬(1920)



이로재기(履露齋記), 김헌주 찬(1921)

회화면 치명(雉鳴)에 있다. 신암(新庵) 박연홍(朴連弘)의 묘소 아래에 재를 짓고 이로재라 하였다. 박연홍은 본관은 밀양, 자는 이서(以瑞)이다. 임란시 군관으로서 최균·최강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고성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진해·웅천 등지를 종횡무진하며 왜적을 물리쳤고, 마산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하고 의관(衣冠)만 거두어 치명산에 장사를 지냈다. 상량문(上樑文)은 1920년(단기 4253, 경신) 후손 기양(基陽)이 지었고, 이로재기(履露齋記)는 문소(聞韶) 김헌주(金獻周)가 1921년 단양절(단오)에 썼다. 이 기문에 ‘이로재’라 이름한 전거를 밝혀놓았다. 즉, “춘우로기유(春雨露既濡) 군자리지(君子履之) 필유출척지심(必有愴傷之心) … 추상로기강(秋霜露既降) 군자지리(君子履之) 필유처창지심(必有悽愴之心) (봄에 비와 이슬이 이미 대지를 적시면 군자는 그것을 밟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있다 …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면 군자는 그것을 밟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이로(履露)’라는 이름을 지었으니 이는 『예기(禮記)』(「제의(祭儀)」 24) 중에 나온 문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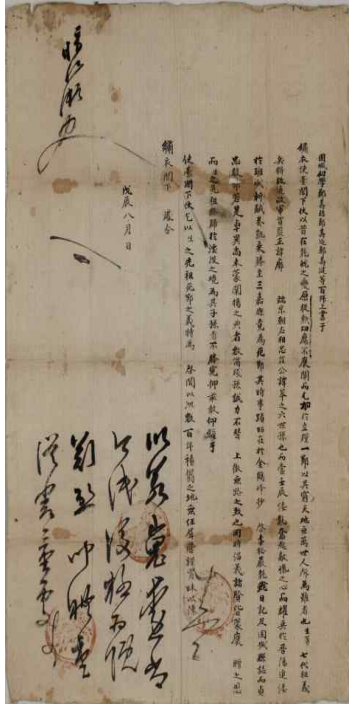
7) 정확 상서(鄭廓 上書)

정확의 본관은 진주이며, 자는 청여(淸汝), 호는 남포(藍圃)이다. 임진왜란시 최강·이달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배둔역에서 적을 막고, 진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남강에서 반성(班城)까지 적군을 추격하며 많은 적을 참살하였다. 또 삼가(三嘉)에 진을 치고 싸우다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는 3건으로서 상서(上書) 2건, 입안(立案) 1건이다. 상서는 壬寅(1842년) 5월, 戊辰(1868년) 8월에 올린 문서가 있으며, 이에 대해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光緒 3년, 1877)가 있다. 정확 형제의 후손들이 어사(御使)에게 올린 문서로서 그들의 공적을 참작하여 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올린 상서의 내용은 같은 맥락이며 이에 대한 조정의 조치로서 예조에서 입안하였는데 이 문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壬寅 상서, 105.0×64.0,
고성박물관



戊辰 상서, 103.8×60.5,
고성박물관



禮曹立案, 108.5×73.0,
고성박물관

「壬寅 상서」

고성현 유학 정수형(鄭壽亨)·정수연(鄭壽延)·정수문(鄭壽文)·정수선(鄭壽善)·정춘방(鄭春芳) 등이 어사에게 아뢰기를, 임진왜란시 창의하여 순절한 선조들이 아직까지 포상을 받지 못하여 그 행적이 문힐 것 같으니 자손된 도리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6대조 확(廓)·규(奎)·섬(澗) 3형제는 단종 때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芾)의 후손으로서 임란시 의병을 일으켜 반성(班城)에서 왜적을 무찔러 이겼으며 삼가현(三嘉縣)까지 추격하였다. 이때 확(廓)은 전투를 독려하다 전사하였고, 규(奎)·섬(澗)은 남은 병사를 이끌고 공을 세워 임란사적이 실려 있으니 초유사 학봉 김성일의 장계(狀啓) 가운데 있다. 군중에서 사절한 충절이 탁월하여 들으니 조정에서 확(廓)을 통훈대부 군자감(軍資監) 정(正)에 추증하고, 규(奎)는 수문장(守門將)에 제수되고, 섬(澗)은 부장(部將)에 제수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훈에 기록되어 있으니 전후에 남다른 업적이 여러 의병장 가운데 특출하다. 이러한 선조들의 업적을 아뢰니 참작하여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무진(戊辰) 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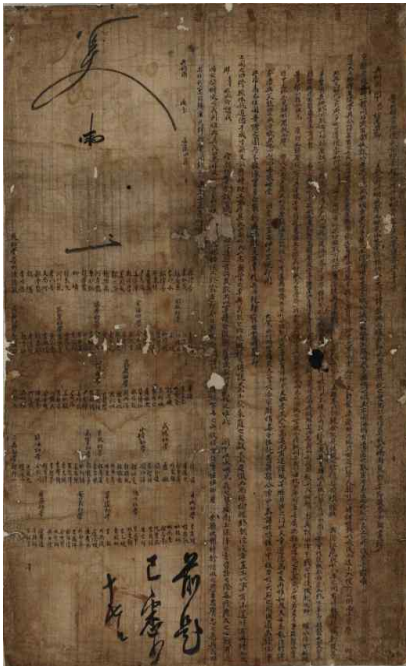
고성유학 정수철(鄭壽喆)·정수연(鄭壽延)·정수건(鄭壽健) 등이 어사에게 그들의 7대 조인 정확이 임진왜란 원종공신임에도 포상의 은전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정확은 의병 장으로써 통정대부 군자감(軍資監) 정(正)에 추증되었으며, 단종조에 우의정을 지낸 충장공(忠莊公) 정분(鄭笨)의 6세손으로서 임진왜란시 적개심으로 떨쳐 일어나 진양에서부터 반성까지 왜적을 추격하여 무찔렀으며 삼가현 지경에서 순절하였다. 이때의 사적(事蹟)이 학봉 김성일의 초계(抄啓)와 송암 이로(李魯)의 『용사일기(龍蛇日記)』 및 『고성현지(固城縣誌)』에 밝혀져 있으니 이처럼 충절이 탁월함에도 아직 포상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제현(諸賢)들은 증직(贈職)의 은전으로 포상을 받았으나 우리 선조의 공적은 인물(湮沒)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자손으로서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어사께 엎드려 선조의 충절을 특별히 왕에게 상주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는 문서이다.

「예조 입안(禮曹 立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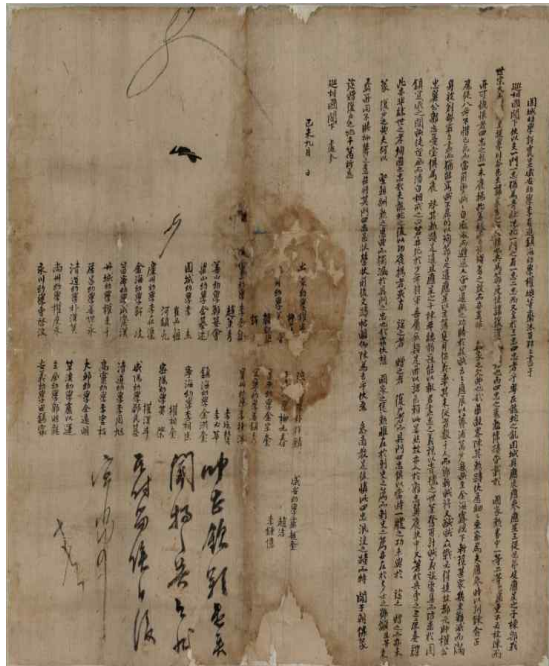
광서(光緒) 3년(1877) 4월, 예조에서 충효 정려사(旌閭事)를 위해 입안한 것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계유식년(癸酉式年, 1873) 외도(外道)의 충효열 초계(抄啓)에 의하여 그해 8월 의정부로 하여금 상고(相考)하게 하고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충효 정려가 제일이다. 고성의 판관 정확은 어려서부터 지각이 남다르고 부모를 섬기는 효가 지극하다.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그 동생 규(奎)·섬(澗)과 더불어 장정을 모집하여 군대를 만들고 적을 무찌른 것이 매우 많았다. 이는 초유사 초계(抄啓) 내에 의병장 정확·최강·이달 등이 군사를 지휘하여 남강에서부터 적을 추격하여 반성에서 참살하였으며, 삼가현으로 이동하여 또한 군공을 세웠다. 계사(1593) 3월 19일 전투중 부상을 당하자 동생 규·섬을 불러 그 군대를 맡기고 순절하였다. 당시 의병장 최(최강)·李(이달) 두 명은 다 포상의 은전을 받았으나 정확은 효친·순절하였음에도 은전을 받지 못하여 병자(丙子)(1876) 11월 의정부에 여러 첩을 보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어떠한지 물었다. 광서 3년(1877) 11월 26일 우부승지(右副承旨) 박용대(朴容大)가 말아 계문하여 왕명을 받도록 하였다. 정문(旌門)을 수립할 때 목장(木匠)은 전례에 의하여 관으로부터 거행할 것이니 그 자손가의 연호(烟戶)를 돌려주고 위와 같은 제반잡역을 전례에 의거하니 이 사항들을 합행하기 위해 입안한 것이다.

8) 창원구씨 상서(昌原具氏 上書)

작성시기	발급자	수급자	내용
壬辰 4월	河珉 등 경상도 유생 133인	兵相國	具應辰·應參·應星·棟과 朴乾甲·坤甲의 포상을 요청
己未 9월	許震昱 등 경상도 유생 45인	관찰사	具應辰·應參·應星·棟의 포상을 요청
甲申 3월 7일	漁在潭 등 경상도 유생 65인	관찰사	具應辰·應參·應星·棟의 포상을 요청
丙戌 3월	李權衡 등 경상도 유생 43인	예조관서	具應辰·應參·應星·棟의 포상을 요청
己丑 10월 10일	徐榛 등 경상도 유생 121인	어사	具應辰·應參·應星·棟의 포상을 요청



壬辰 상서, 129.3×88.4, 고성박물관



己未 상서, 101.7×102, 고성박물관



甲申 상서, 103.6×67.3, 고성박물관

丙戌 상서, 119.5×71.6, 고성박물관

己丑 상서, 94×56.4, 고성박물관

위 5건의 상서는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상 모두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임진 4월에 작성한 상서에는 창원구씨 4인 이외에도 박건갑·곤갑 형제의 공적에 대한 포상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문서에 창원구씨 4인, 박씨 2인의 임진왜란 중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으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원구씨(昌原具氏) 사충(四忠) 즉, 응진(應辰)·응삼(應參)·응성(應星)은 종형제이며 여기에 응성의 아들 동(棟)을 가리킨다. 이들의 7대조인 천곡(川谷) 구종길(具宗吉)은 세종대왕의 사부이자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으며 6대조 복한(復漢)은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구응삼은 훈련첨정(訓練僉正)으로서 왜적이 날뛰는 것을 보고 비분(悲憤)하여 눈물을 흘리며 어가를 8년간 호종하였다. 그 공으로 원종공신 1등에 참록되었다.

구응진은 제포만호(濟浦萬戶)로서 왜적이 바다를 건너오자 군졸을 모아 지휘하여 배에 올라 추격하였다. 김해 노현(露峴)에 이르자 배에서 내려 수많은 적군을 참획하여 거의 섬멸하였으나 온 몸에 부상을 입고 순절하였다. 원종공신 2등에 참록되었다.

구응성은 주부(主簿)로서 처음에는 홀로 적들과 싸워 적장을 죽이고 적기를 빼앗았다. 이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어나 수천 명에 달하였고 광재우 진중, 도원수 권을 진중에 가

서도 여러 차례 승첩하였다. 이에 권율·곽재우와 함께 포상하는 계문에 올랐으며 원종공신 2등에 참록되었다.

구동은 응성의 아들로서 임란 당시 약관의 나이였다. 의병을 일으키자 구름처럼 모였고 의령·함안 두 고을에서 적군을 무찔렀다. 적군은 그 기세에 놀려 무너졌으니 혹 말하기를 ‘우리들로서는 소년장군에 범접할 수 없다’ 고 하며 그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하였다. 곽재우의 포상 계문 가운데 나와 있음에도 원종공신에 참록되지 못하였음을 호소하고 있다.

박건갑·곤갑 형제는 분개하며 세세토록 받은 국은(國恩)을 저버릴 수 없다하였다. 대가(大駕)가 서행(西行)했다는 소식에 북쪽을 향해 통곡하며 가묘에 고하고 처자를 돌보지 않고 곽재우 진중으로 갔다. 참모로서 활약하였는데 진주성이 적군에 포위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부대를 이끌고 적과 전투 중 군세가 기울고 힘이 다하여 순절하였다.